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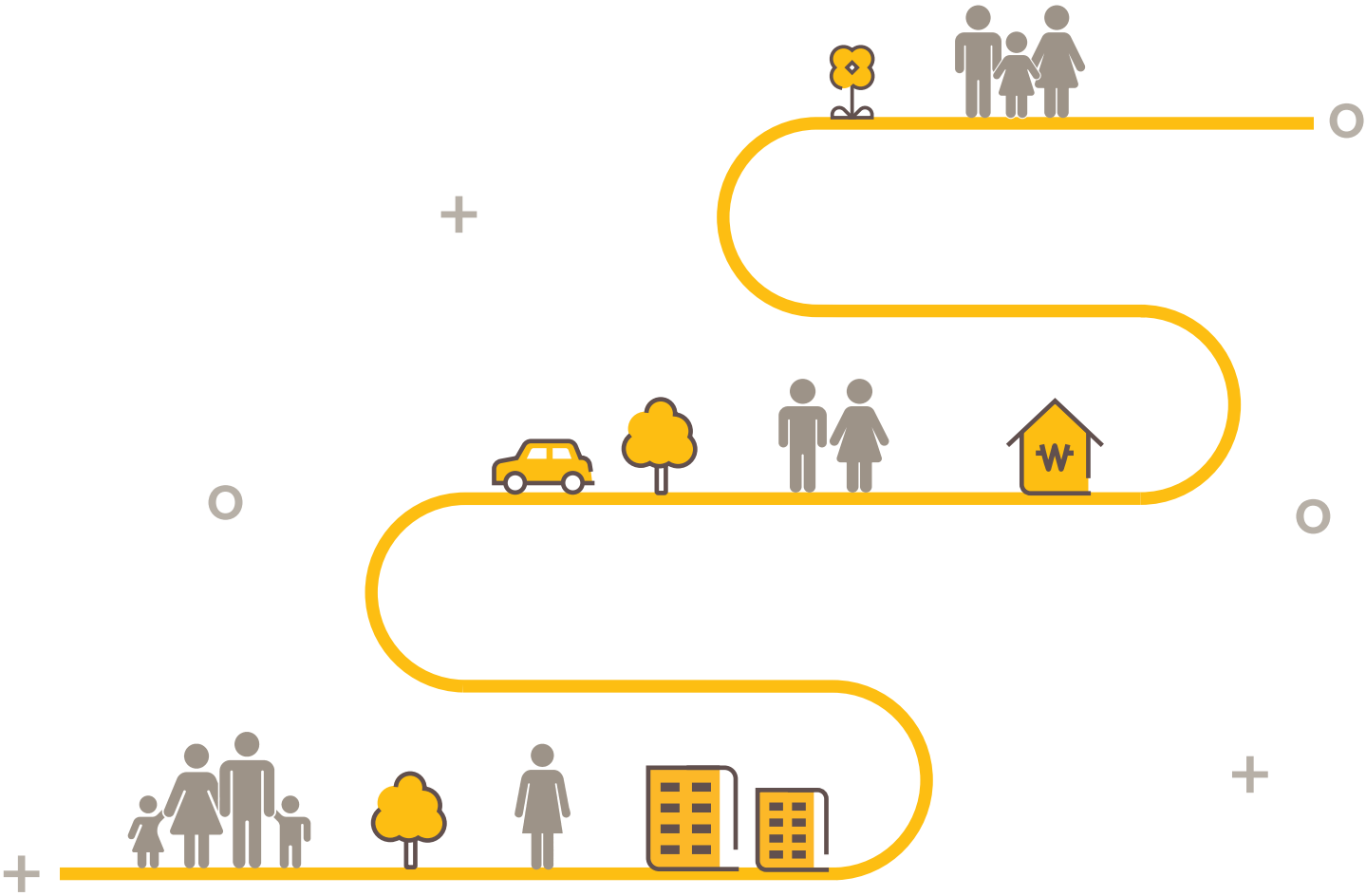
2023 KB골든라이프보고서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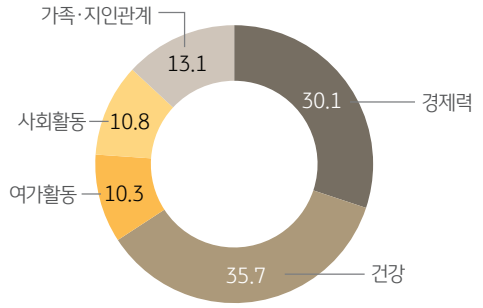
황원경 | 강윤정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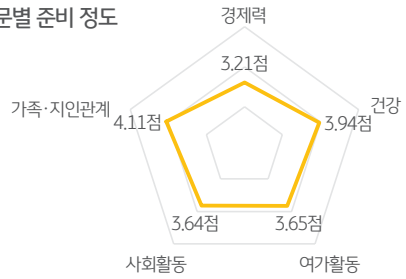


[단위: %]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 특히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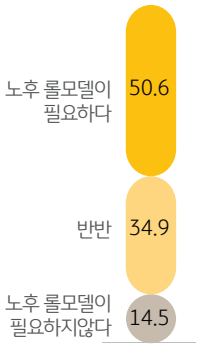
- 전반적 준비 정도

- 부문별 준비 정도



응답자 절반은 노후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롤모델도 있음

- 노후 롤모델 필요정도



- 노후 롤모델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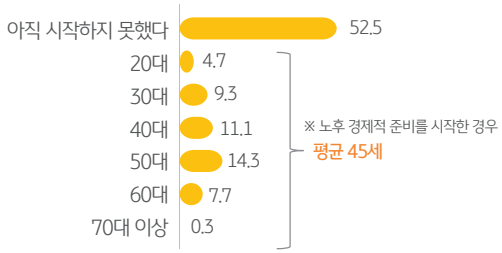
[단위: %]

실제 은퇴 시기는 희망 나이보다 10년 빨랐고, 절반은 아직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 못함

- 은퇴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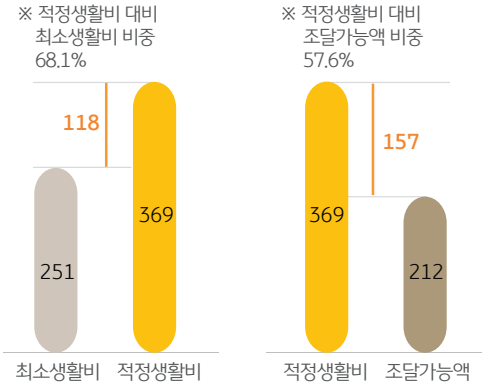
[희망 은퇴나이] 평균 65세 —10세→ [실제 은퇴나이] 평균 55세

-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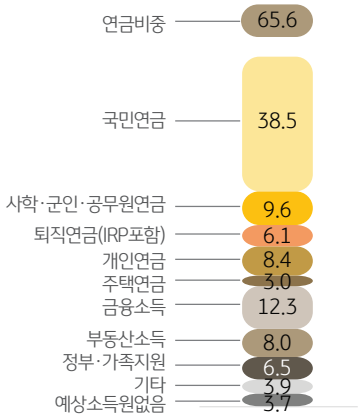
[단위: %]

노후의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원, 이 중 조달가능 규모는 57.6%에 불과



[단위: 만원]

노후 매월 생활비로 조달가능한 금액 중 65.6%를 각종연금으로 충당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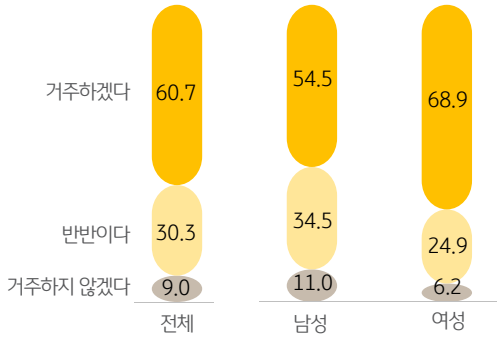


[단위: %]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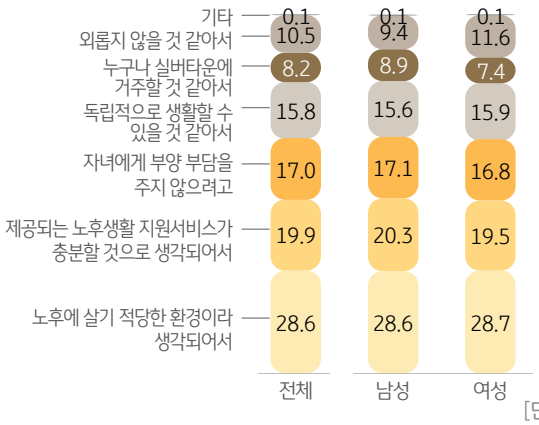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60.7%는 긍정적,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반응

※ 실버타운: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일정 주거비를 지불하고 입주하여 식당,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을 지원받는 시니어 전용 주거시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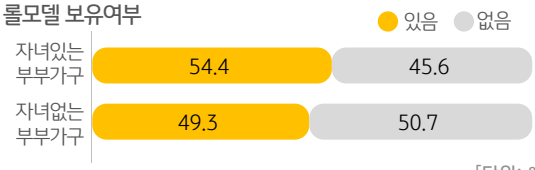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살기 좋은 환경, 생활지원서비스 때문



[단위: %]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 롤모델이 있는 경우가 많음

- 롤모델 보유여부



[단위: %]

- 롤모델(롤모델 보유자 한정, 복수응답)

자녀있는 부부가구

지인	부모	위인	인플루언서	배우자
(49.6%)	(19.9%)	(17.3%)	(14.3%)	(10.0%)

자녀없는 부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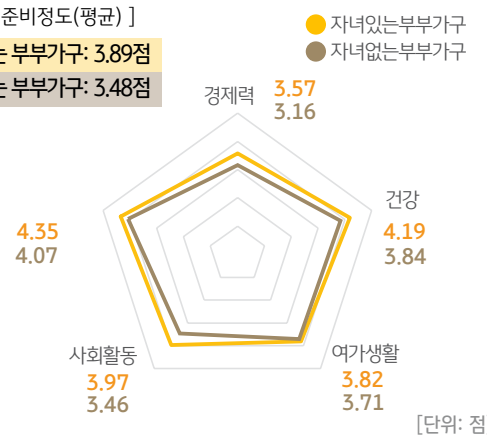
지인	배우자	인플루언서	위인	공인
(42.9%)	(35.7%)	(21.4%)	(17.1%)	(14.3%)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생활 준비 정도 양호

[전반적 준비정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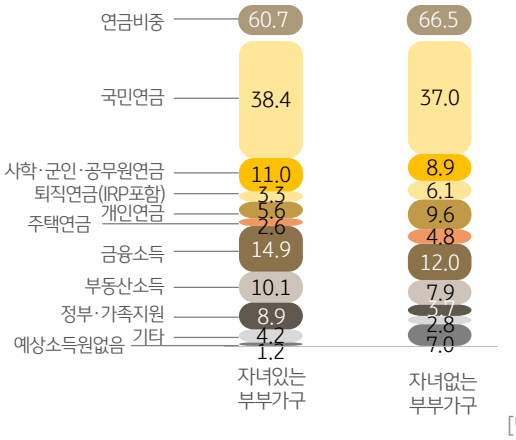
자녀있는 부부가구: 3.89점

자녀없는 부부가구: 3.48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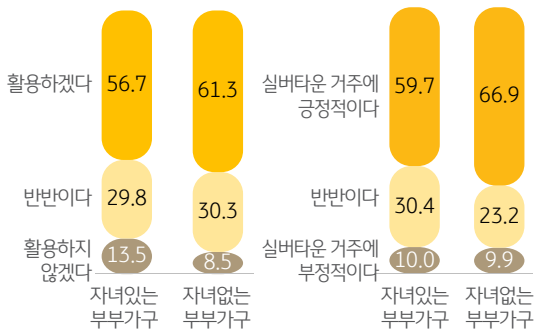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노후자금의 연금 의존도가 높음



[단위: %]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노후 주거 시설 이용에 긍정적

- 거동이 어려워지면 집보다 요양시설을 활용할 것이다
- 향후 실버타운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



[단위: %]

Executive Summary 1

2017년 시작되어 올해 세 번째 발간되는 「2023년 KB골든라이프 보고서」는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한국인의 노후 준비 현황을 소개하고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여 각자에게 맞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노후생활 준비 진단 ②노후 경제적 준비 진단 ③노후 거주지 선택 니즈 진단 ④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진단을 담았다.

【 노후생활 준비 】

■ 한국 가구는 노후생활 준비 정도에 대해 20%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노후생활의 양대 기둥은 '건강'(35.7%)과 '경제력'(30.1%)으로 나타났다. '건강', '여가생활', '경제력', '사회활동(일)', '가족·지인관계'의 다섯 가지 부문을 종합한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21.2%로 2018년(22.2%)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가족·지인관계'가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노후생활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경제력'은 가장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53.5%가 '준비 부족').

■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구는 30%,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현역가구 33.6%가 지금과 비교해 노후생활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예상은 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개인연금을 보유한 현역가구(38.1%)가 그렇지 않은 현역가구(27.5%)에 비해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생활 부문별로 보면 개인연금을 보유한 현역가구는 '경제력'과 '사회활동', '가족·지인관계'에서 그렇지 않은 현역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 노후생활에 대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있다'는 경우는 전체 가구의 55.3%였다.

기대수명의 연장, 저출산과 비혼,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가구유형의 다양화 또한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 맞춤형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 과정과 방법이 불명확한 '행복한 노후생활'에 안착하기 위해 모범으로 삼을 '롤모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의 50.5%, '은퇴후가구'의 51.6%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반반'이라는 응답도 3분의 1을 차지했다(은퇴전가구 34.9%, 은퇴후가구 35.7%). 노후생활에 대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있다'는 의견은 55.3%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롤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지인'이나 '부모'를 롤모델로 삼은 경우가 많았고, 자기 관리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가정에 충실한 모습 때문에 롤모델로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 노후 경제적 준비 】

■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예상보다 10년이나 짧은데 아직 시작도 못 한 가구가 52.5%였다.

은퇴전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은퇴 나이는 55세로 10년 빨랐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가구'가 52.5%였고,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평균 45세에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은퇴 나이와 10년 차이에 불과해 충분한 준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됐다.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 원,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전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으로 2018년보다 106만 원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적정생활비로 '부모자녀가구'가 402만 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컸고, '부부가구'(366만 원), '1인가구'(299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가 예상한 적정생활비 중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금액('조달가능생활비')은 적정생활비의 57.6%인 월 212만 원에 불과했다. 가구 유형별 조달가능생활비는 '부부가구'가 63.4%(232만 원)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부모자녀가구' 56.5%(227만 원), '1인가구' 52.5%(157만 원)의 순이었다.

■ 조달가능생활비의 65.6%는 공적·퇴직·개인·주택연금으로 준비할 계획이었다.

노후 조달가능생활비를 준비할 때 활용하는 방법은 '국민연금'(86.8%), '개인연금'(58.7%), '이자와 금융상품 원금 등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 조달가능생활비의 65.6%는 연금으로 준비할 계획이었다. 노후 조달가능생활비에서 연금 비중은 '부모자녀가구'가 69.7%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부부가구'(61.7%)와 '1인가구'(61.1%) 순이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소득 부족'(57.1%), '경제 불확실성·물가 상승'(48.2%),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41.3%) 순으로 꼽았고,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예정된 지출 부담'(37.5%)이 그 뒤를 이었다.

■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1인당 보유율은 1인가구가 가장 높았다.

전체 가구의 91.6%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그 외 '퇴직연금'(52.3%), 세액공제형 개인연금(39.7%),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23.0%)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공적연금' 1.1개, '퇴직연금' 0.8개, '개인연금'(세액공제형과 비공제형의 합) 0.8개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모자녀가구' 3.0개, '부부가구' 2.4개, '1인가구' 2.1개의 연금을 보유하여 1인당 보유율은 1인가구가 가장 높았다.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과 경제적 준비 】

'부부가구'는 2020년 16.8%에서 2040년 22.2%로 증가하며 전통적 부모자녀가구보다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부가구는 현재 부부만 살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자녀가 있으나 부부만 같이 사는 가구(이하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부부가구(이하 '자녀없는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노후생활에서 '건강'(37.9%)과 '경제력'(28.1%)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경제력'(33.3%)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건강'은 32.1%).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률도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31.2%로 자녀없는 부부가구(18.3%)에 비해 높았다.

■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 경제적 준비도 잘 되어 있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35.3%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이 비율이 63.4%로 28.1%p 컸다.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생활비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358만 원 중 65.5%인 235만 원을,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401만 원의 54.3%인 218만 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통해 준비하려는 노후 자금 비중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60.7%인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66.5%로 상대적으로 연금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 의향도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18.5%에 그친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26.8%로 높았다.

【 노후 거주지 선택 】

■ 노후 거주지는 시설 인프라보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한국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9.1년이었고, 은퇴전가구는 평균 8.7년인 데 비해 은퇴후가구는 평균 13.1년으로 4.4년 더 길었다. 현재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은퇴전가구'(56.6%)보다 '은퇴후가구'(69.7%)가 높았다. 노후 거주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묻는 질문에서도 시설 인프라보다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42.6%)를 희망하는 가구가 많았다. 그 외 인프라로는 '의료시설'(30.3%), '쇼핑시설'(27.5%), '교통'(27.0%), '공원'(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내 집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안전한 주거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응답자의 59.6%가 '노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여성'(62.1%)이 '남성' (57.7%)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고령자일수록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혹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익숙한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Aging In Place(AIP)'에 대해서도 66.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내가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배우자·가족 등 간병'(32.5%)에 대한 지원과 '집안일'(22.7%), '자택수리'(21.1%), '은행, 병원 등 근거리 외출'(20.0%)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노후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보수나 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71.3%가 동의했다.

■ 노인 공동 주거시설의 하나인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노인 공동 주거시설의 하나인 '실버타운'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7%가 '거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여성'(68.9%)이 '남성'(54.5%)보다 거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노후에 살기 적당한 환경'(28.6%)과 '충분한 노후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19.9%)이 가장 많았다. '실버타운'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로시설'(8.9%)이나 '간병시설'(4.4%)의 시설적 이미지보다 '노인 생활 케어 시설'(34.3%)나 '고령자 공동생활 주택'(24.8%) 등 긍정적 이미지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CONTENTS

Ⅰ. 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

01 |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10
02 |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14
03 | 노후생활 변화 방향 16
04 | 노후생활 만족도 18

Ⅱ.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상황

01 | 노후 경제적 준비 시기 24
02 |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 26
03 | 연금 보유 현황 30

Ⅲ. [이슈1] 노후 거주지 선택 관련 니즈

01 | 노후 거주지 선택 요건 36
02 | 실버타운 거주 니즈 40
03 | Aging In Place 니즈 42

Ⅳ. [이슈2]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

– 자녀있는 부부가구 vs. 자녀없는 부부가구

01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48
02 | 부부가구의 노후 경제적 준비 54
03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및 금융 니즈 56

[참고] 61

I

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

01 |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02 |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03 | 노후생활 변화 방향

04 | 노후생활 만족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2001년 76.5세와 비교해 20년 사이 7.1세 증가했다. 기대수명 연장은 단순히 생존 기간이 늘어난 문제가 아니라 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국인의 노후 준비 현주소를 짚어 본다.

제1장에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지인관계 등 노후생활의 부문별 중요도와 준비 정도, 노후에 대한 이미지와 롤모델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후 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후에 대한 롤모델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미혼·비혼 및 만혼화, 이혼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부모자녀가구에서 2000년대 들어 가구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2020년에는 1인가구가, 2040년에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사회의 주된 가구유형으로 자리잡을 전망된다. 예정된 변화이지만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행복한 노후'라는 목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준비 과정'을 벤치마킹할 대상('롤모델')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누구나 처음 가야만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과정이나 방법이 막연하고 불분명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정표가 될 '롤모델'의 필요성 인식 정도와 보유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자 한다.

New Findings

5가구 중 1가구만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35.7%)과 '경제력'(30.1%)

☞ 전체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21.2%로 2018년(22.2%)보다 감소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경제력'은 가장 준비가 미흡(53.5%가 '준비 부족')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에 관심이 적었다

☞ 자신의 노후생활 모습의 양대 기둥으로 '일'과 '여가생활'을 예상

☞ 노후생활에 대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50%만 동의

☞ 실제로 노후생활 롤모델이 있는 응답자는 55.3%, 롤모델은 대부분 '지인'이나 '부모'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미래 노후생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응답자 30%만 미래 노후생활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

☞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미래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 현역가구와 반퇴가구의 경우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경제력과 사회활동 부문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상

☞ 반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가구는 경제력과 사회활동뿐 아니라 건강, 여가생활, 가족·지인관계 등에서도 노후생활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

노후 후반기에도 보험이나 거주 주택 유지•보수 등 비용 발생 사안이 많았다

☞ 은퇴후가구는 최근 '건강관리', '여가·취미활동', '소득·지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노후 후반기에 들어선 75~79세 응답자는 '건강관리·질병 대비'(53.0%), '건강관리·질병 대비 보험'(35.9%), '여가·취미활동'(27.4%), '거주 주택 유지·보수'(27.4%)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음

전체 가구의 절반만 현재의 노후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 현재의 노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은퇴후가구는 49.6%로 2018년 대비 2.5%p 감소

☞ 노후생활 부문별 만족도는 '가족·지인관계'(7점 만점에서 4.57점), '건강'(4.33점), '여가생활'(4.22점) , '사회활동'(4.08점) , '경제력'(3.86점)의 순

☞ 은퇴후가구는 노후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배우자·가족 간병'(41.0%), '가족·지인과의 관계'(26.2%), '집안일'(25.0%) 등을 지적

01.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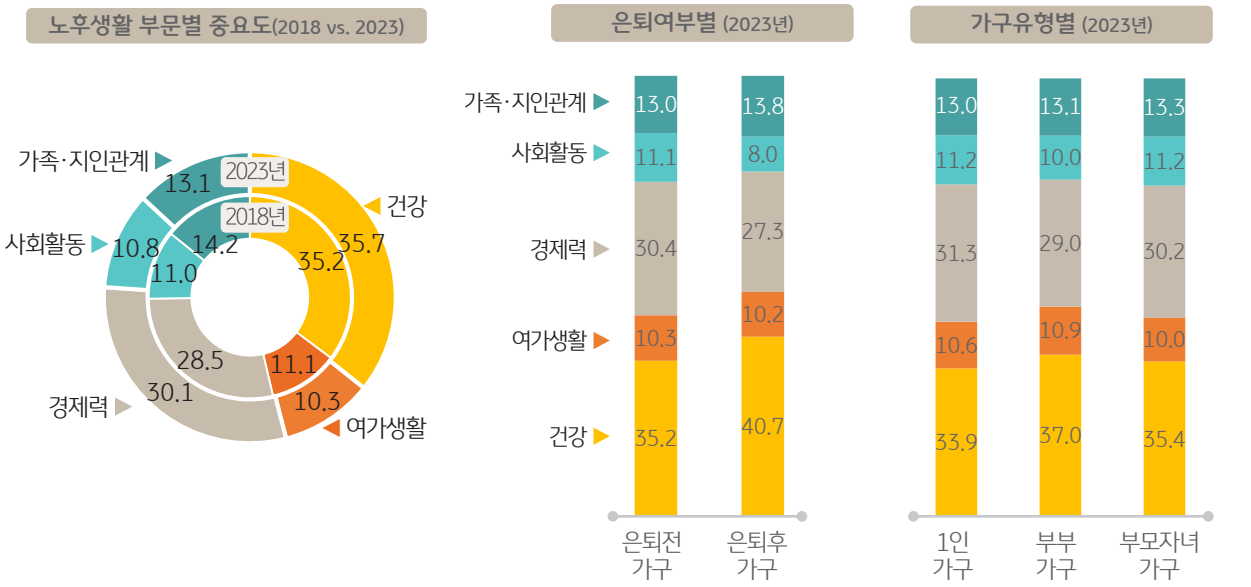
노년의 행복한 삶의 양대 기둥은 '건강'과 '경제력' 이다

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진 지금, 사람들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부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건강'(35.7%)과 '경제력'(30.1%)이 삶의 양대 기둥으로 꼽혔고, 뒤이어 '가족·지인관계'(13.1%)와 '사회활동'(10.8%), '여가생활'(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해 '건강'(0.5%p)과 '경제력'(1.6%p)은 응답률이 증가한 반면 '가족·지인관계'(-1.1%p), '사회활동'(-0.2%p)과 '여가생활'(-0.8%p)은 응답률이 감소했다.

노후생활 부문별 중요도는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후가구(40.7%)는 은퇴전가구(35.2%)에 비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는 '건강'을, 1인가구는 '경제력'을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부부가구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독립 생활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따로 사는 자녀에게 돌봄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주) 2018년 n=3000, 2023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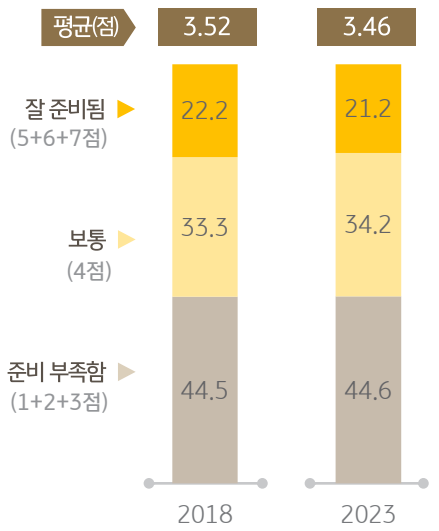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전체의 21.2%,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16.6%에 그쳤다

앞서 살펴본 건강, 경제력,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지인관계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생활 부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물었다. 노후 준비 정도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전체 가구의 21.2%만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44.6%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2018년과 비교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율은 1.0%p 감소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율은 0.1%p 증가하며 소폭이지만 노후 준비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부문별로 살펴보면 노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가족·지인이 있다는 응답률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부문으로 꼽힌 '건강'(31.9%)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27.0%와 24.6%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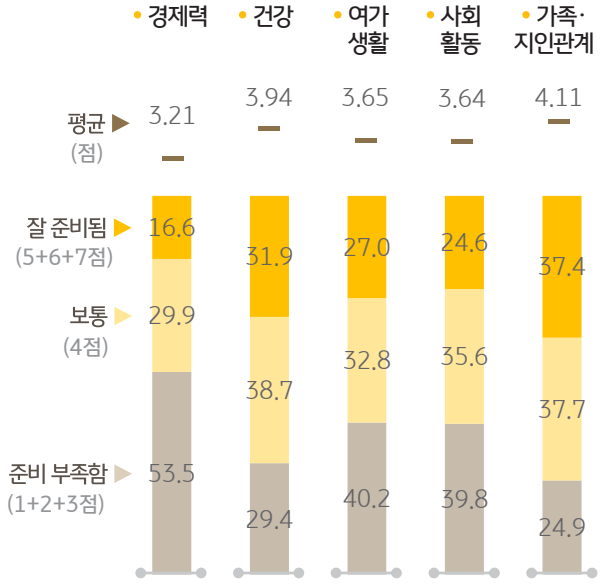
반면 '건강'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부문으로 꼽힌 '경제력'은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가구의 16.6%만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53.5%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림 I-2 | 전반적인 노후 준비 정도 (단위:%)



주1) 2018년 n=3000, 2023년 n=3000
주2)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7점(잘 준비되어 있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그림 I-3 | 노후생활 부문별 준비 정도(2023년) (단위:%)



주) 현역·반퇴가구만 응답, 노후 생활 요소별 각각 n=2756

노후 준비 정도가 가장 취약한 가구 유형은 1인가구와 프리랜서 가구였다

가구 유형별로 노후 준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건강과 경제력,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지인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부문별로 보면 부부가구는 '가족·지인관계'를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건강', '사회활동', '여가생활', '경제력'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구는 부모자녀가구에 비해 '경제력' 부문에서 0.32점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활동'(0.28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부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경제력'(0.48점)과 '사회생활'(0.37) 부문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든 부문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 프리랜서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경제력' 부문에서는 취약함을 나타냈으나, 임금근로자나 프리랜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프리랜서의 경우 '경제력'뿐 아니라 '건강', '가족·지인관계', '사회활동', '여가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노후 준비 정도가 미흡했다.

그림 I-4 | 가구 유형별 노후생활 부문별 준비 정도(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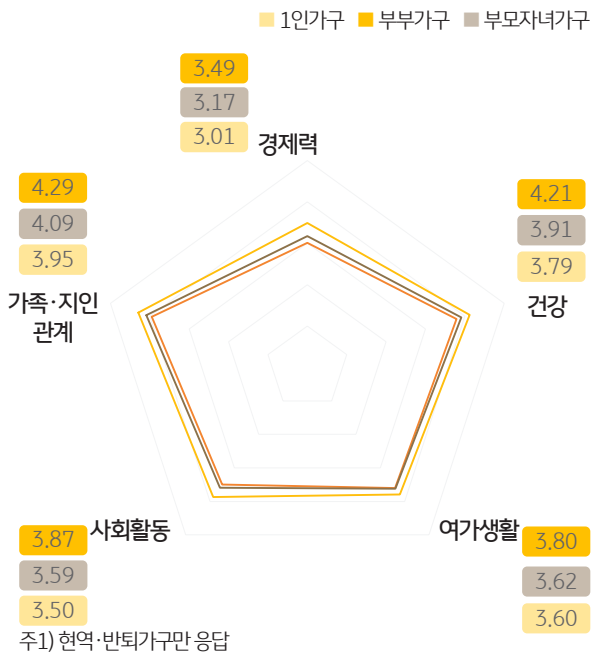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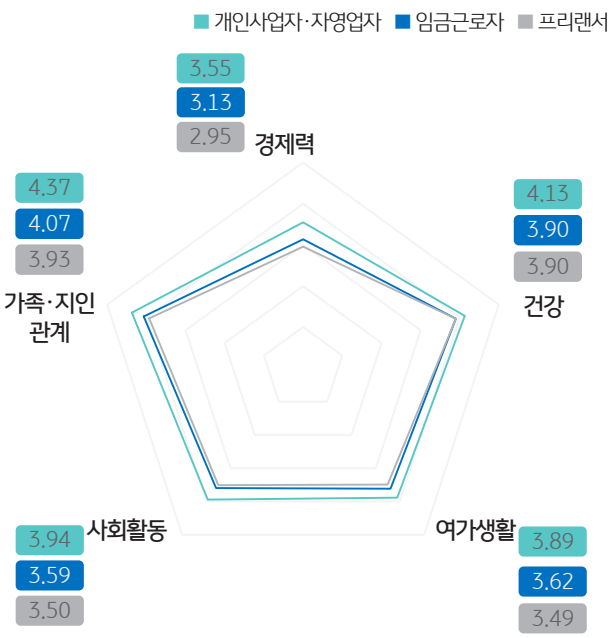


그림 I-5 | 직업 유형별 노후생활 부문별 준비 정도(단위:점)



주1) 현역·반퇴가구만 응답
주2) 가구 유형별 1인가구 n=571, 부부가구 n=697, 부모자녀가구 n=1422 주3) 직업 유형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n=419, 임금근로자 n=1872, 프리랜서 n=165
주4) 준비 정도는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7점(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02.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자신의 노후생활 모습의 양대 기둥으로 '일'과 '여가생활'을 예상하고 있었다

흔히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노후생활을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 3분의 2는 '일·소득활동'(36.5%)과 '여가생활'(31.1%)이 자신의 노후생활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 유형이나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살펴보아도 응답률 차이를 보일 뿐 '일·소득활동'과 '여가생활' 부문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실천해 나갈 일이 남았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가족의식 약화 및 가족 해체 증가, 비혼·만혼화 등으로 다양한 가구유형이 등장하고 사회의 주된 가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누구나 처음 가야만 하고 그래서 과정과 방법이 불명확한 '행복한 노후생활로 가는 길'에 모범으로 삼을 '롤모델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노후생활 롤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의 50.5%, '은퇴후가구'의 51.6%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반반'이라는 응답도 3분의 1을 차지했다(은퇴전가구 34.9%, 은퇴후가구 35.7%). 노후 준비 정도별로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 노후를 잘 준비하는데 벤치마킹할 적절한 롤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그림 I-6 | 예상하는 나의 노후생활 모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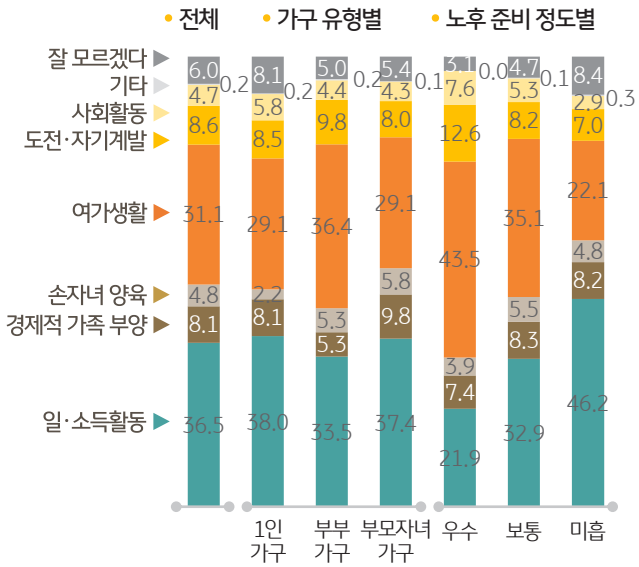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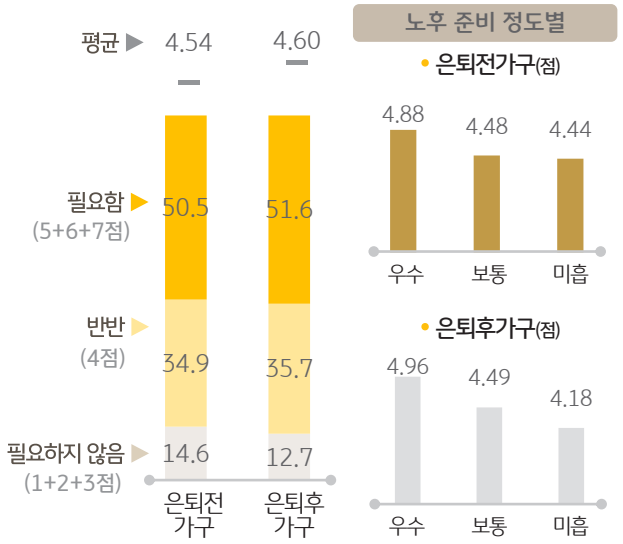


그림 I-7 | 노후생활 롤모델 필요성 (단위: %, 점)



주1) 전체 n=3000, 가구 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인식하는 노후 준비 정도별 우수 n=635, 보통 n=1026, 미흡 n=1339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주2)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확대가 예상되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는 롤모델이 있는 경우가 적었고, 노후생활 롤모델은 대부분 '지인'과 '부모'로 주변에서 찾았다

노후생활 롤모델이 있는 응답자는 55.3%로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약 50%)와 유사한 비중을 기록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51.2%)와 '부부가구'(53.5%)가 '부모자녀가구'(58.5%)에 비해 롤모델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전통적 가구 유형인 부모자녀가구에 비해 스스로에게 적합한 롤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 준비 정도별로는 노후 준비가 우수할수록 롤모델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우수'의 경우 64.3%, '보통'의 57.9%, '미흡'의 49.1%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롤모델은 친구나 동료, 직장 선배 등의 '지인'(36.0%)과 '부모'(30.4%)로 주변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고, '위인'(17.8%),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접한 '인플루언서'(17.1%)가 그 뒤를 이었다. 롤모델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하기에 그 정보를 받기 용이한 주변 인물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롤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인·위인·공인은 '자기관리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서'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모는 '배우자나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 좋아서'가 가장 많았다. 지인·위인·공인은 자기관리나 자기계발을, 부모는 가정생활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중시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인플루언서'를 롤모델로 선택한 경우도 상위를 차지했다. 이들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것 같아서'로 나타나 경제력에 대한 모델은 외부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8 | 노후생활 롤모델 유무와 주된 롤모델

주) 전체 n=3000, 가구 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인식하는 노후 준비 정도별 우수 n=635, 보통 n=1026, 미흡 n=1339

03. 노후생활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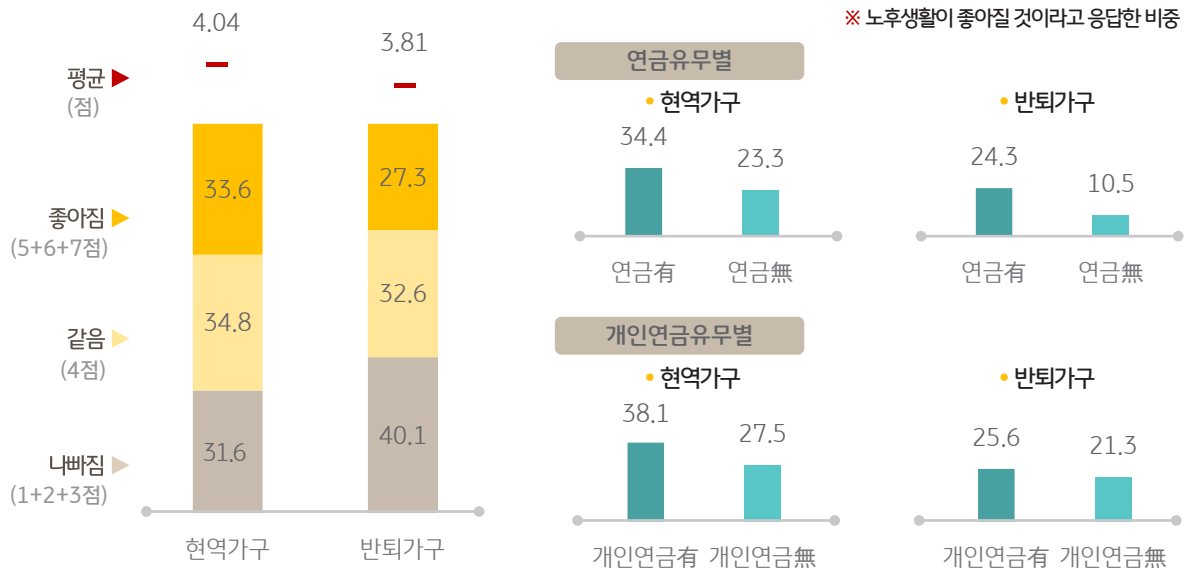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가구는 30%,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고자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사회활동, 여가생활 등을 종합하여 노후생활이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 이와 함께 현역가구와 반퇴가구로 나누어 근로 상황이 노후생활 부문 중 가장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가구'는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 비율이 33.6%로 '반퇴가구'(27.3%)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부 중 1명 또는 2명 모두 주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반퇴가구'의 경우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 비율이 40.1%를 차지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연금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I-9 |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예상하는 노후생활 변화 (단위:%, 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현역가구 n=2013, 반퇴가구 n=743

주2) 1점(매우 나빠질 것이다)~7점(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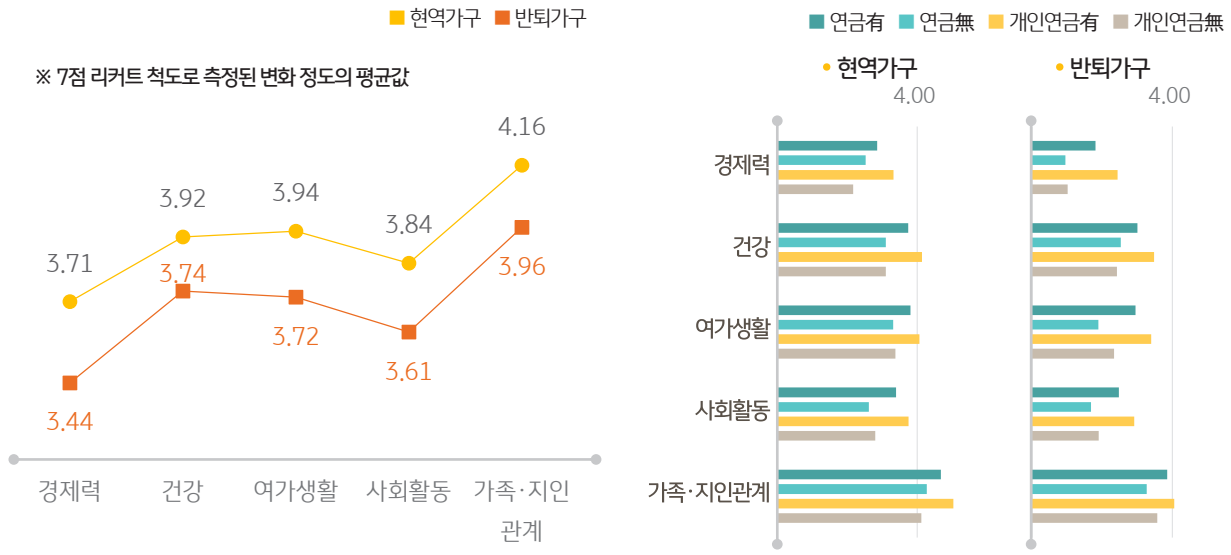
노후생활 부문 중 가족•지인관계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경제력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구가 많았다

앞서 노후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는지 질문한 결과, 현역가구가 반퇴가구보다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후생활 부문별로 나누어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가족·지인관계'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경제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구가 많았다. 그 외 '건강'이나 '여가생활',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구가 많았다. 가구 구성원 근무 유형별로 보면 노후생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망과 마찬가지로 부문별 전망에서도 '현역가구'가 '반퇴가구'에 비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노후생활 변화에 대한 부문별 전망은 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I-10 | 노후생활 부문별 변화 전망 (단위: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 유형별 현역가구 n=2013, 반퇴가구 n=743 주2) 연금有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주3) 1점(매우 나빠질 것이다)~7점(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04. 노후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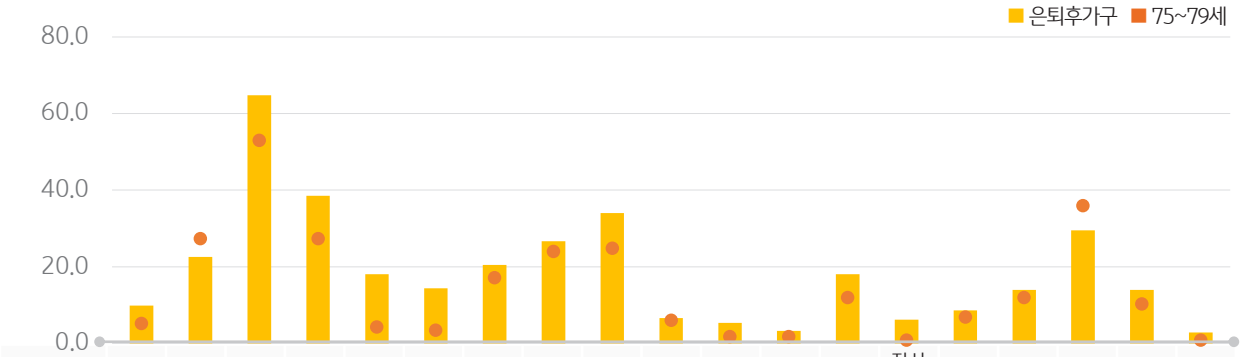
현재 부부가 모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가구는 '건강관리', '여가•취미활동', '소득•지출관리'에 관심이 높았다

특정 시점에 느끼는 부족함과 애로사항은 잠재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현재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은퇴가구'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접어든 은퇴가구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질병 대비'로 응답자 64.8%가 꼽았고, 주요 관심사는 '여가·취미활동'(38.5%), '소득·지출관리'(3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질병·노후대비 보험 준비'(29.5%), '지인·가족관계 형성'(26.6%)도 응답자 4분의 1 이상이 선택했다.

노후 후반부로 갈수록 관심사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75~79세 응답자의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건강관리·질병 대비'(53.0%)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으로 '질병·노후대비 보험 준비'(35.9%), '여가·취미활동'(27.4%), '거주 주택 유지 ·보수'(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후반부로 갈수록 보험 구입이나 주택 유지·보수 등 생존과 밀접한 부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니즈가 발생하는 당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림 I-11 | 은퇴가구의 최근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주택 유지·보수	건강 관리·질병 대비	여가·취미 활동	장기 여행 계획	재능 기부·봉사 활동	자산 상속·증여	지인·가족 관계 형성	소득·지출 관리	가계 부채 관리	퇴직금 운용·관리	연금 가입·관리	상속·증여 관련 절세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투자 상품 탐색·운용	부동산 자산 투자·운용	질병·노후 대비 보험	긴급 자금 마련	디지털 금융 이용법 터득
은퇴후가구	9.8	22.5	64.8	38.5	18.0	14.3	20.5	26.6	34.0	6.6	5.3	3.3	18.0	6.1	8.6	13.9	29.5	13.9	2.9
75~79세	5.1	27.4	53.0	27.4	4.3	3.4	17.1	23.9	24.8	6.0	1.7	1.7	12.0	0.9	6.8	12.0	35.9	10.3	0.9

주1) 은퇴후가구 n=244, 75~79세 n=117 주2) 5% 미만 응답률을 보인 가업 승계, 창업, 이직·재취업 등 항목은 상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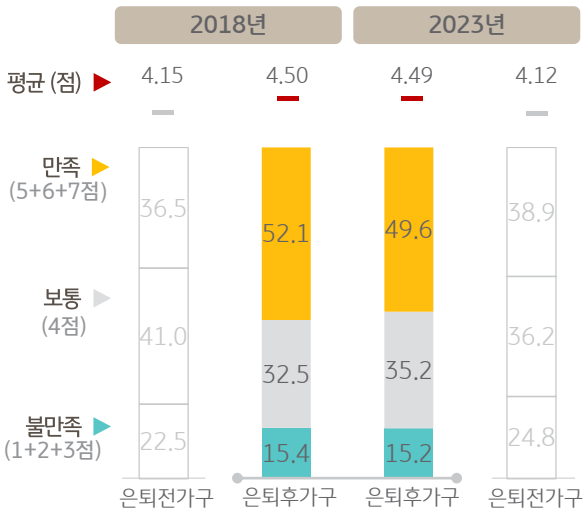
은퇴후가구는 노후생활에 대해 절반 정도가 만족했고, 은퇴전가구의 현재 생활 만족도에 비해 높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부부가 모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은퇴후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은퇴후가구는 현재 건강이나 경제력,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지인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49.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52.1%에 비해 2.5%p 하락했으나 은퇴전가구의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 38.9%과 비교해 10.7%p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은퇴후가구의 노후생활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지인관계'가 7점 만점에서 평균 4.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4.3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여가생활'(4.22점), '사회활동'(4.08점), '경제력'(3.86점)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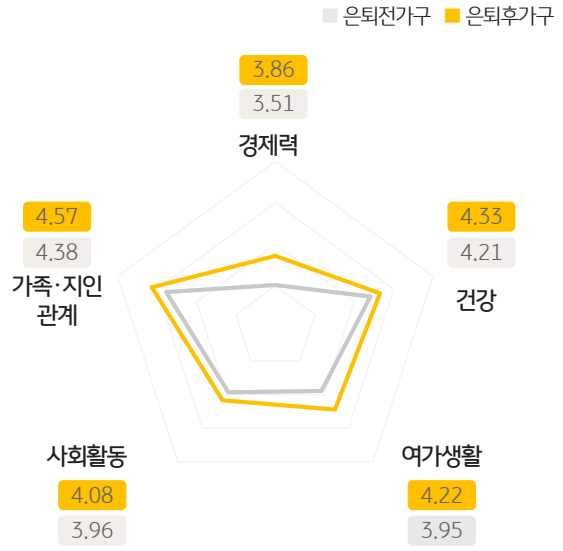
노후생활 부문별 만족도 역시 은퇴후가구가 은퇴전가구에 비해 높았다. '가족·지인관계'와 '건강', '사회활동' 부문에서는 은퇴전가구와 은퇴후가구 간 만족도 차이가 0.1점대로 크지 않았으나 '경제력'과 '여가생활' 부문에서는 각각 0.35점, 0.27점으로 은퇴후가구의 노후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I-12 | 전반적인 노후생활 만족도 (단위:점,%)



주1) 만족도 수준은 1점(매우 불만족) ~ 7점(매우 만족)의 '7점 리커트척도' 사용
주2) 2018년 은퇴전가구 n=2831, 은퇴후가구 n=169
2023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그림 I-13 | 노후생활 부문별 만족도(2023년) (단위:점)



노후생활 만족도 현황
주) 은퇴후가구 n=244, 은퇴전가구 n=2756

은퇴가구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노후생활의 애로사항으로 '배우자•가족 간병', '가족•지인관계', '집안일'을 꼽았다

은퇴후가구가 실제로 노후생활 중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배우자·가족 간병'(41.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지인관계'(26.2%)와 '집안일'(25.0%)을 4가구 중 1가구가 노후생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 외 '음식·요리'(22.1%)와 '자산관리'(20.9%), '생활용품 구입'(17.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은퇴전가구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배우자·가족 간병'을 예상하는 것은 은퇴후가구와 동일했으나 뒤이어 '자산관리'(37.9%), '가족·지인관계'(21.3%), '집안일'(18.5%), '장거리 여행'(1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은퇴후가구와는 달리 '자산관리'나 '장거리 여행'을 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예상했다.

은퇴후가구가 실제 경험한 노후생활 애로사항과 은퇴전가구가 예상한 애로사항을 비교해보면, '자산관리'와 '배우자·가족 간병'에 대해서는 은퇴후가구에 비해 은퇴전가구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은퇴전가구와 은퇴후가구는 '자산관리'의 경우 17.0%p, '배우자·가족 간병'은 12.5%p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가구 간 응답률 차이가 큰 부문은 '음식·요리'(8.4%p), '생활용품 구입'(6.6%p), '집안일'(6.5%p)로, 은퇴후가구가 은퇴전가구에 비해 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은퇴전가구가 예상하는 노후생활 애로사항과 은퇴후가구의 실제 경험과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음을 볼 때 은퇴전가구가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였다.

그림 I-14 | 은퇴후가구의 노후생활 애로사항 Top10 (은퇴후가구 vs. 은퇴전가구) (1+2+3순위, 단위:%, %p)

순위	은퇴후가구가 실제 경험한 노후생활 애로사항(%)	은퇴전가구가 예상한 노후생활 애로사항(%)	실제와 인식의 차이(%p) (은퇴후가구 – 은퇴전가구)
1	배우자·가족 간병 (41.0)	배우자·가족 간병 (53.4)	자산관리 (-17.0)
2	가족· 지인관계 (26.2)	자산관리 (37.9)	배우자·가족 간병 (-12.5)
3	집안일 (25.0)	가족·지인관계 (21.3)	음식·요리 (+8.4)
4	음식·요리 (22.1)	집안일 (18.5)	생활용품 구입 (+6.6)
5	자산관리 (20.9)	여행(장거리) (15.6)	집안일 (+6.5)
6	생활용품 구입 (17.2)	무거운 짐 나르기 (14.6)	외출(은행, 병원 등) (+5.4)
7	외출(은행, 병원 등) (16.0)	음식·요리 (13.7)	가족· 지인관계 (+4.9)
8	여행(장거리) (15.6)	디지털·전자기기 사용법 습득 (11.6)	금융 거래 (+4.1)
9	자택 수리 (13.9)	생활용품 구입 (10.6)	디지털·전자기기 사용법 습득 (-3.8)
10	금융 거래 (12.7)	외출(은행, 병원 등) (10.6)	자택수리 (+3.8)

주1) 상위 10개 항목만 제시. 이외 운전, 자녀 왕래, 기타, 걱정되는 부분 없음 등 의견이 있음
주2) 은퇴후가구 n=244, 은퇴전가구 n=2756 주3) '실제와 인식의 차이'의 순위는 절대값이 큰 순서로 나열

Ⅱ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상황

01 | 노후 경제적 준비 시기

02 |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

03 | 연금 보유 현황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 연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100세 시대는 인생 후반기 절대 시간 연장을 의미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1장에서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세부 부문별 준비 정도를 진단해 보았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건강과 경제력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력에 대한 준비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부문이지만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던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2장에서는 은퇴 나이를 조사하여 노후 경제적 준비 기간을 파악하고, 노후생활비 규모와 조달 계획, 준비 정도, 그리고 노후생활비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 보유 현황을 알아본다.

New Findings

노후 경제적 준비 기간은 예상보다 짧았으며 준비를 시작도 못 한 경우가 절반이었다

☞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은퇴 희망 나이는 평균 65세, 실제 은퇴 나이는 55세로 10년 빠름

☞ 노후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52.5%,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나이는 평균 45세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달 능력은 줄었다

☞ 노후를 위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 원, 적정생활비 월 369만 원(2018년보다 67만 원, 106만 원 증가)

☞ 현재 노후생활비로 조달가능액은 월 212만 원으로 예상하며 최소생활비(월 251만 원)에 미달

☞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액 비중은 57.6%로 5년 전인 2018년(63.9%)에 비해 감소

☞ 가구 유형별 조달가능액 비중은 '부부가구'(63.4%), '부모자녀가구'(56.5%) '1인가구'(52.5%) 순

노후생활비 중 65.6%를 공적·퇴직·개인·주택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노후생활비 충당 방법은 '국민연금'(86.8%), '개인연금'(58.7%),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 연금이 주를 이룸

☞ 노후생활비 조달가능액(212만 원) 중 65.6%를 연금으로 조달할 계획. 연금 의존도는 부모자녀가구(69.7%)가 가장 높음

☞ 노후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 부족'(57.1%), '경제 불확실성·물가상승'(48.2%),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41.3%)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1인당 보유율은 1인가구가 가장 높았다

☞ 전체 가구 91.6%가 공적연금을 보유. 그 외 퇴직연금(52.3%), 세액공제형 개인연금(39.7%),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23.0%)을 가지고 있음

☞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공적연금이 1.1개, 퇴직연금 0.8개, 개인연금 0.8개

☞ '부모자녀가구'가 3.0개, '부부가구' 2.4개, '1인가구' 2.1개의 연금 보유. 1인당 보유 개수로 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연금을 가지고 있음

개인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었다

☞ 개인연금을 가입한 주된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55.6%)과 '세액공제 혜택'(38.2%) 때문

☞ 10명 중 3명(29.1%)은 개인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음

☞ 중도 환매 이유는 '생활비 필요'(23.3%), '목돈 필요'(20.5%), '낮은 수익률'(19.5%) 때문

01. 노후 경제적 준비 시기

실제 은퇴 나이는 희망 은퇴 나이보다 10년 빨랐고, 응답자 절반 정도는 아직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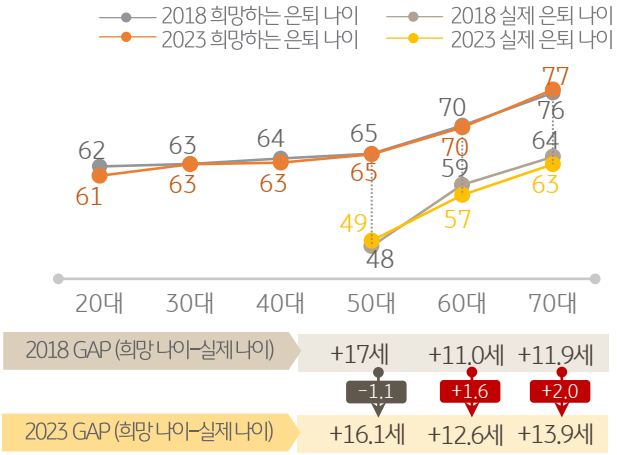
수명 연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늘어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 활동 기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게 '희망하는 은퇴 나이'를, 이미 은퇴한 가구에게 '실제 은퇴 나이'를 질문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로 2018년 조사와 동일했다. 희망 은퇴 나이는 응답자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의 은퇴 희망 나이는 61세로 2018년 62세 대비 소폭 낮아졌다. 30대부터 50대는 60대 초·중반에 은퇴를 희망했으나 60대는 70세, 70대는 77세로 희망 은퇴 나이가 급격하게 올라가 은퇴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실제 은퇴 나이는 50대가 '49세', 60대가 '57세', 70대가 '63세'로 연령대별 희망 은퇴 나이보다 10년 이상 일찍 은퇴했다.

실제 은퇴 시기가 희망하는 은퇴 시기보다 빠른 상황에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52.5%로 2018년 조사(53.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 그 시기는 평균 45세로 2018년 조사(44세)와 비교해 다소 늦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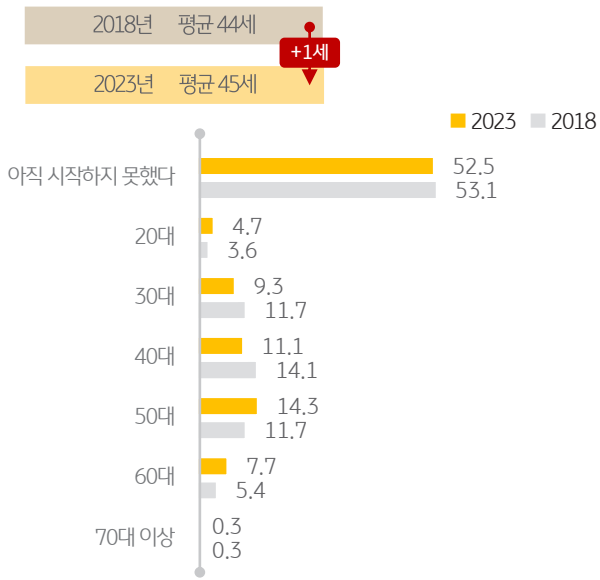
그림II-1 | 희망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단위: 세)

[희망 은퇴 나이] 2018년 평균 65세, 2023년 평균 65세
[실제 은퇴 나이] 2018년 평균 51세, 2023년 평균 55세



주) 희망 은퇴 나이에 응답: 2018년 n=2512, 2023년 n=2477
실제 은퇴 나이에 응답: 2018년 n=331, 2023년 n=409

그림II-2 |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시기 (단위: %)



주) 2018년 n=3000, 2023년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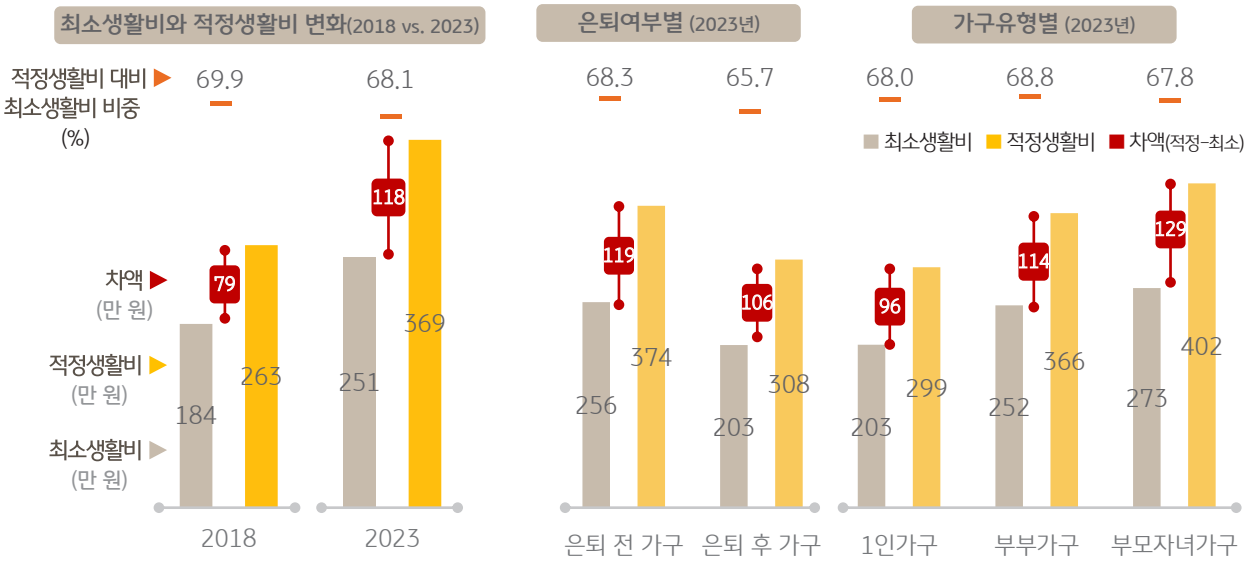
02.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

노후를 위한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 원,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으로 2018년보다 최소생활비는 67만 원, 적정생활비는 106만 원 늘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시작을 한 경우도 45세가 되어서야 행동에 나섰다. 경제적 준비를 위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노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인 '최소생활비'로는 월 251만 원을, 그 외 여행·여가활동·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비용인 '적정생활비'로는 월 369만 원을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적정생활비의 68.1%로 118만 원이 적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최소생활비는 67만 원이, 적정생활비는 106만 원이 증가했다.

은퇴전가구는 매월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로 각각 256만 원과 374만 원을 예상했으며 이는 은퇴후가구의 최소생활비 대비 53만 원, 적정생활비 대비 66만 원이 큰 금액이었다.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부 반영되면서 자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후생활비 규모는 1인가구가 가장 작고 부모자녀가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부부가구에 비해서도 예상하는 노후자금 규모가 크며 이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II-3 | 노후 매달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단위:만 원)



주1) 2018년 n=3000, 2023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56, 은퇴후 n=24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주2) 최소생활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 적정생활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및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비용(현재 가치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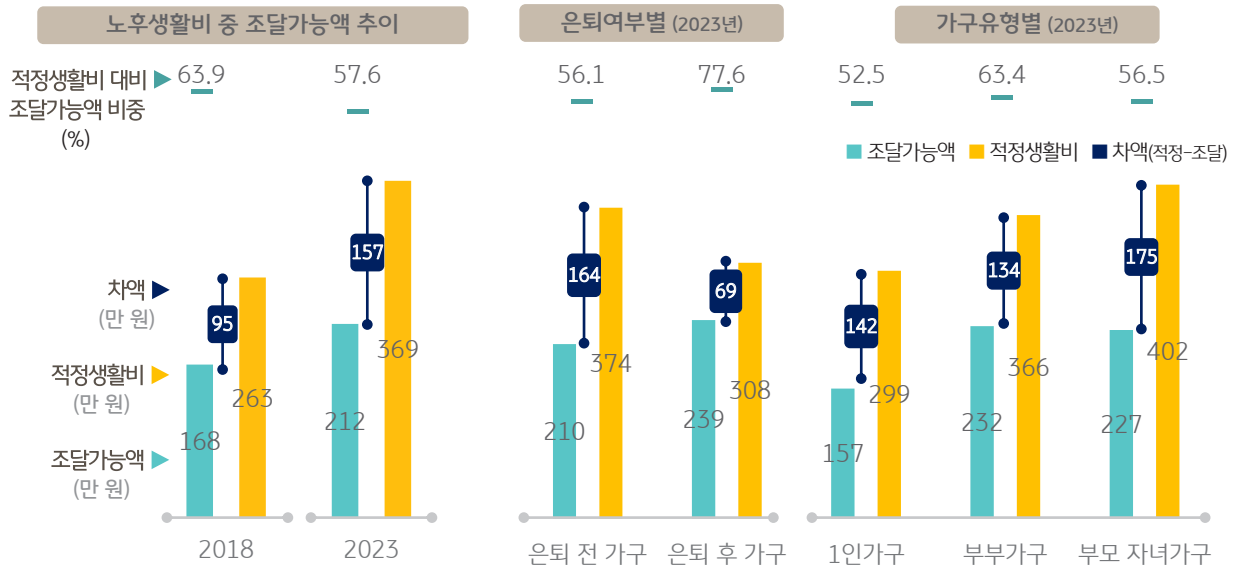
현재 가구 수입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해 준비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월 212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57.6% 수준이다

한국 가구가 향후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월평균 251만 원,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노후 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한 가구에서 노후생활비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월 212만 원으로 월평균 최소생활비인 251만 원에 못 미쳤으며, 적정생활비의 57.6%에 그쳤다.

가구 구성원의 은퇴 여부별로 노후생활비 조달가능액을 살펴보면, 은퇴전가구가 월 210만 원으로 은퇴후가구 월 239만 원에 비해 20만 원가량 적었다. 은퇴전가구의 조달가능액은 적정생활비 대비 56.1% 수준이었고 최소생활비인 256만 원에서 46만 원이 부족했다. 반면 은퇴후가구의 실제 조달가능액은 적정생활비(308만 원) 대비 77.6%에 달했으며 은퇴전가구의 예상 금액보다 많았는데, 이는 은퇴전가구가 은퇴후가구보다 현재와 미래의 노후 준비 여건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액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부부가구'(63.4%)였으며, 뒤이어 '부모자녀가구'(56.5%), '1인가구'(52.5%)의 순이었다. 반면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액의 부족 규모는 '부모자녀가구'가 175만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1인가구'가 142만 원, '부부가구'가 13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II-4 | 노후생활비 중 매달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단위: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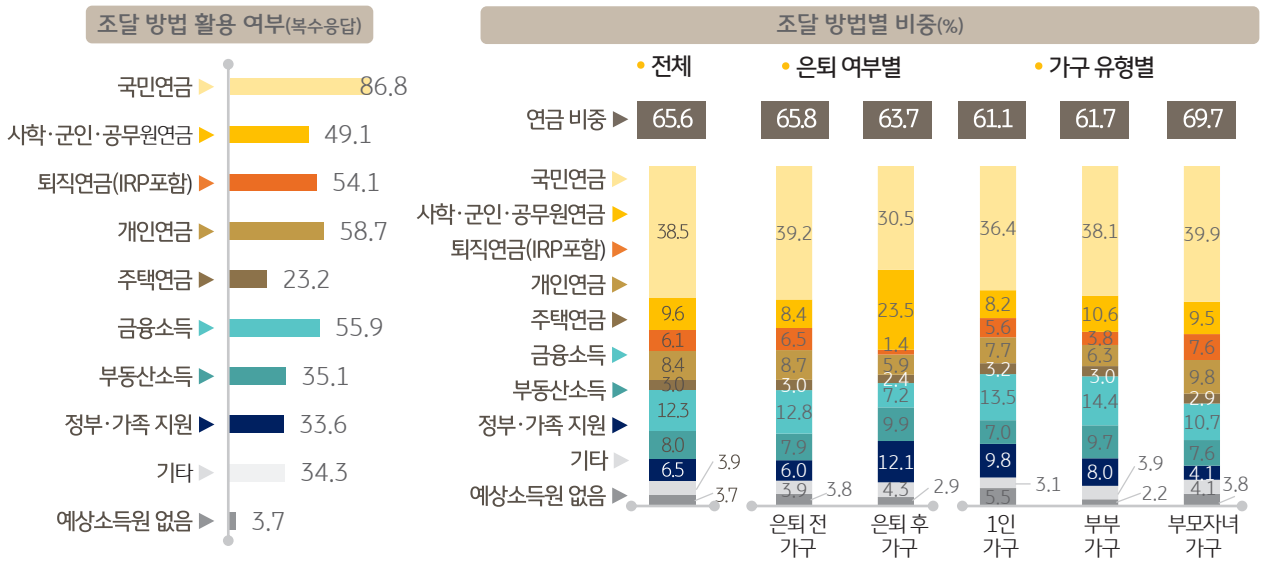
주1) 2018년 n=3000, 2023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주2) 조달가능액은 현재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를 고려할 때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노후생활비 중 65.6%를 공적•퇴직•개인•주택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노후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활용 가능한 방법은 국민연금과 사학·군인·공무원연금,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자나 금융상품원금 등 금융소득, 임대료 등 부동산소득, 가족 지원,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 등 다양하다. 한국 가구는 이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려 하는지 물었다. 노후생활비 조달 수단으로 가장 많이 꼽은 방법은 '국민연금'(86.8%)이었고, 뒤이어 '개인연금'(58.7%),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는 '주택연금'(23.2%)과 '부동산임대소득'(35.1%)은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꼽은 경우가 적었다. 조사 대상 가구 3분의 1은 '정부나 가족 지원'(33.6%)도 노후생활비 조달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아르바이트와 정부 지원형 소일거리 등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노후생활비 조달가능액 월 212만 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이 38.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사학·군인·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을 합한 '연금'으로 65.6%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은퇴 여부에 따라 연금을 활용해 노후생활비 조달가능액을 마련하려는 가구 비중은 '은퇴전가구'(65.8%)가 '은퇴후가구'(63.7%)보다 컸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69.7%)가 '1인가구'(61.1%)나 '부부가구'(61.7%)에 비해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연금'을 통한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II-5 | 향후 노후생활비 조달 방법 및 비중 (단위:%)



주1) 전체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639, 부부가구 n=824, 부모자녀가구 n=1461
주2) 조달가능비는 현재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를 고려할 때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이유는 소득 부족, 미래 불확실성, 사고 가능성, 예정된 지출 부담 때문이었다

노후생활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나 적정생활비에 비해 예상하는 조달가능액은 부족했다. 노후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 부족'(57.1%)이 가장 컸고, '경제 불확실성·물가상승'(48.2%),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41.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본인 결혼 등 '예정된 지출 부담'(37.5%), '은퇴 설계를 위한 재무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2.3%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20%는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13.9%)거나 '공적연금으로 충분하다'(8.5%),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6.4%) 등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은퇴전가구'에 비해 '은퇴후가구'에서 '공적연금으로 충분하다'(17.6%)거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8.6%)는 생각이 컸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꼽았다. 가구별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예정된 지출 부담'(44.7%)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1인가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 '소비 지출 관리 실패'(16.1%)에 대한 우려감이 컸으며, 부부가구는 '은퇴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이 부족'(16.3%)하다는 점을 들어 상품 제공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림II-6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 (1+2+3순위, 단위:%)

		전체	은퇴 여부별		가구 유형별		
			은퇴전가구	은퇴후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n)	(3000)	(2756)	(244)	(639)	(824)	(1461)
경제적 여력 부족	소득 부족	57.1	57.9	48.4	60.4	54.0	57.2
	경제불확실성·물가상승	48.2	48.5	45.1	46.0	51.2	47.6
	예정된 지출부담	37.5	38.1	29.9	26.1	32.5	44.7
	소비지출 관리 실패	12.7	12.8	11.1	16.1	11.2	12.0
정보·상품 부족	은퇴 재무설계 정보·지식 부족	22.3	22.3	22.1	23.6	22.8	21.8
	은퇴 최적화된 금융상품 부족	14.4	14.0	18.0	14.4	16.3	13.5
	관련 전문가 조언 부족	8.1	8.1	7.4	7.7	8.3	8.3
미래 불확실성·시간 부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41.3	41.0	45.1	41.3	43.6	39.8
	시간 부족	10.8	11.1	7.4	11.4	10.2	11.0
노후 준비 불필요	나중에 준비 가능	13.9	14.1	11.9	14.7	13.2	14.0
	공적연금으로 충분	8.5	7.7	17.6	8.8	10.2	7.4
	도움이 안됨	6.4	6.2	8.6	9.1	6.4	5.1
	기타	0.5	0.5	0.0	0.3	0.7	0.3

주) 은퇴후가구의 경우 경제적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응답

03. 연금 보유 현황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고, 부모자녀가구는 3.0개를 보유해 1인가구나 부부가구에 비해 많았다

은퇴전문가들은 노후자금 마련 전략으로 3층 또는 4층 연금 탑을 거론한다. 1층은 국민연금과 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을 의미하며 4층에는 '주택연금'이 들어간다. 앞서 한국 가구가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생활비 비중이 65.6%를 차지했는데 현재 가구에서는 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공적연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91.6%)가 보유하고 있었고, 가구의 52.3%는 '퇴직연금'을, 39.7%는 개인연금의 하나인 '세액공제 가능연금'을, 23.0%는 '세액공제 불가능연금'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가구가 1인가구나 부부가구에 비해 연금 보유율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부모의 생각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보유한 연금 개수는 가구당 평균 2.8개로 공적연금이 평균 1.1개, 퇴직연금 0.8개, 개인연금 0.8개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모자녀가구'가 3.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가구'(2.4개)와 '1인가구'(2.1개)의 순이었다. 그러나 1인당 연금 보유 개수로 환산하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II-7 | 연금 보유율 및 보유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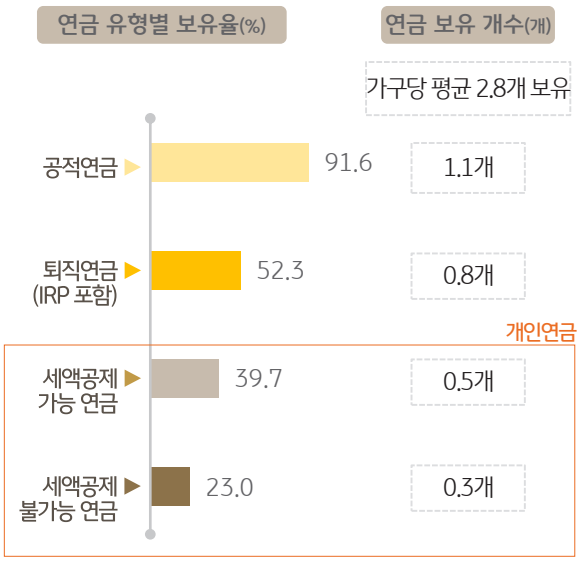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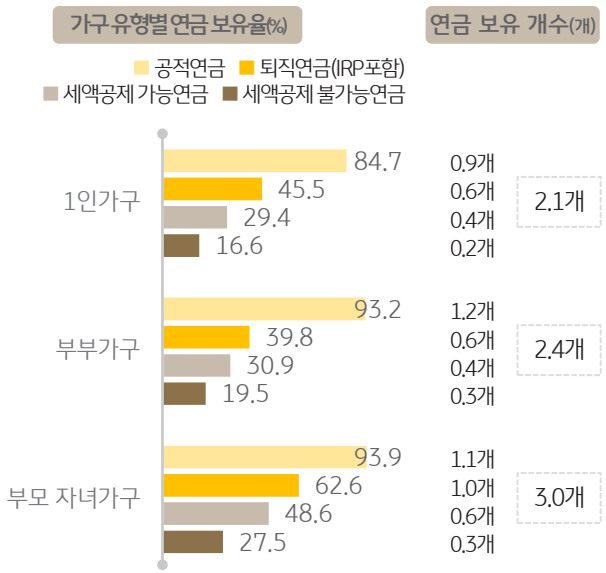


그림 II-8 | 가구 유형별 연금 보유율 및 보유 개수



주) 전체n=3000, 가구유형별1인가구n=639, 부부가구n=824, 부모자녀가구n=1461, 자녀없는부부가구n=142, 자녀있는부부가구n=682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 가구가 3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년 전에 비해 가장 크게 늘었다

현재 보유한 연금을 중심으로 한국 가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다.

네 가지 연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종합형' 가구는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네 가지 연금 중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을 제외한 세 가지 연금을 가진 '절세지향형' 가구가 20.2%를 기록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보유한 '관심부족형' 가구가 17.2%에 달하고,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 가구는 3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세액공제형이나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종합지향형' 가구는 13.3%를 기록했다. 이전 2018년 조사와 비교해 연금종합형·관심부족형·종합지향형 가구는 감소한 반면 여력부족형 가구는 9.2%p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연금에 취약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금 보유 개수를 '연금보유에 따른 5개 가구유형'으로 살펴보면 '연금종합형'이 가구당 평균 4.9개로 가장 많은 연금을 보유하고 다음으로 '절세지향형'이 가구당 3.9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 '종합지향형'이 가구당 2.7개를, '관심부족형'은 가구당 2.5개를, '여력부족형' 경우 가구당 1.2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II-9 | '연금 보유에 따른 5개 가구 유형' 현황 (복수응답,단위:%,%p)

	비중 추이(2018 vs. 2023)		연금 보유 여부				연금 보유 개수(개)				
	2018	2023	공적연금	퇴직연금 (IRP 포함)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IRP 포함)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계
연금종합형	22.4	18.3	●	●	●	●	1.2	1.6	0.8	1.3	4.9개
절세지향형	15.7	20.2	●	●	●		1.1	1.6	1.2	0.0	3.9개
관심부족형	20.5	17.2	●	●			1.1	1.4	0.0	0.0	2.5개
종합지향형	20.5	13.3	●	●	● or	●	1.2	0.0	0.9	0.6	2.7개
여력부족형	20.9	31.1	●				1.2	0.0	0.0	0.0	1.2개

주) 연금종합형 n=502, 절세지향형 n=554, 관심부족형 n=472, 종합지향형 n=365 , 여력부족형 n=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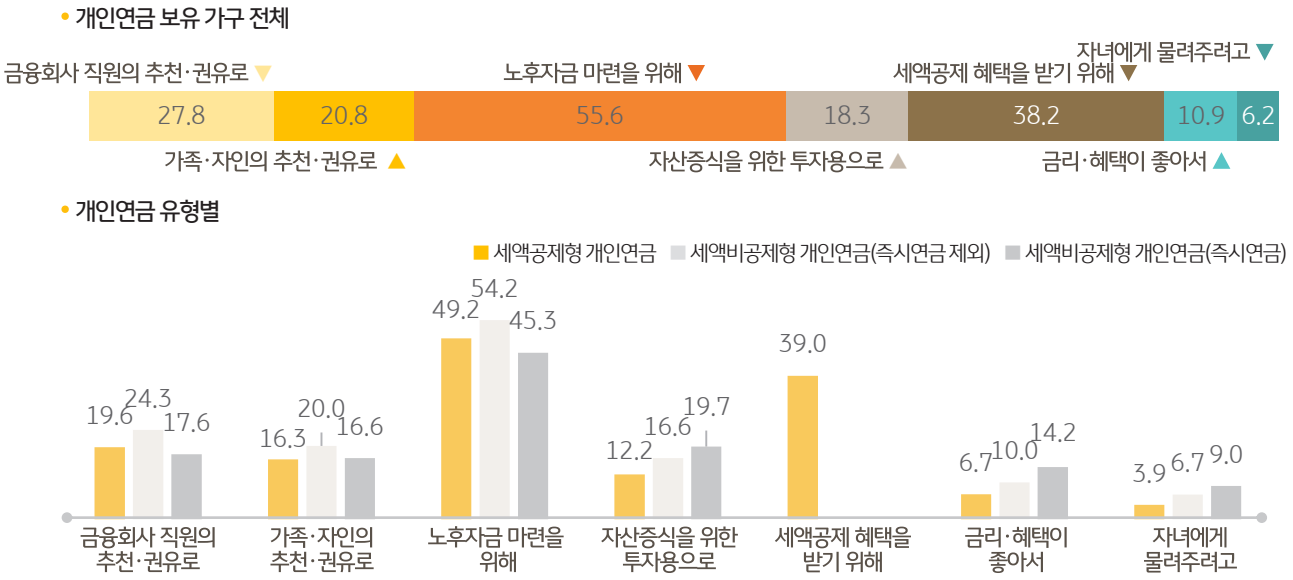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3층 또는 4층 연금 탑이 거론되고 있지만 연금상품을 가입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나 지급 시기, 환매 금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노후자금 마련 이외의 목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연금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로 55.6% 응답자가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38.2%를 차지했다. 그 외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과 권유로'(27.8%), '가족·지인의 추천과 권유로'(20.8%) 가입한 경우도 20%대를 기록하여 5명 중 1명인 셈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용'으로 고려하거나 '금리·혜택이 좋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연금 유형별로 나누어 가입 이유를 알아보면, 세액공제 가능연금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49.2%)과 '세액공제 혜택'(39.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세액공제 불가능연금에 가입한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이유(54.2%)도 크지만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과 권유'나 '가족·지인의 추천과 권유'(각각 24.3%, 20.0%),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용으로'(16.6%) 가입한 경우도 많아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상품성을 보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즉시연금을 가입한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의지가 컸다.

그림 II-10 | 연금상품을 구입한 목적 (개인연금 보유 가구 한정)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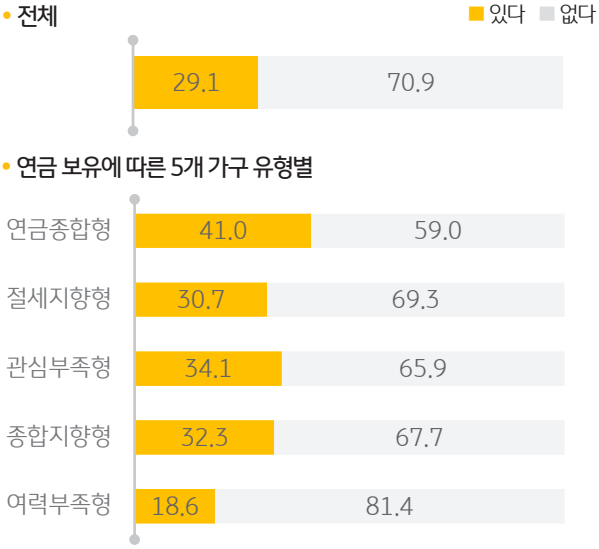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 보유 가구 전체 n=1638,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n=1191,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제외) n=511,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n=289

응답자 29.1%가 개인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유는 생활비나 목돈 마련, 낮은 수익률 때문이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은 장기 보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중도 환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29.1%가 개인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생활비가 필요해서'(23.3%)가 가장 큰 이유였고, '목돈이 필요해서'(20.5%), '낮은 수익률 때문에'(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후자금 마련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장기 보유가 필수인 개인연금이 생활이 팍팍해 중도 환매하는 경우 이외에도 수익률 때문에 환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개인연금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 가지 연금 보유 가구 유형별 중도 환매 경험은 '연금종합형' 가구가 41.0%로 가장 많았고, '관심부족형' 가구(34.1%)·'종합지향형' 가구(32.3%)·'절세지향형' 가구(30.7%)는 3분의 1 정도가, '여력부족형' 가구의 경우 18.6%가 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었다. '연금종합형' 가구는 목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환매했고, '절세지향형' 가구는 낮은 수익률 때문에 중도 환매한 경우가 많음을 볼 때 노후자금 마련보다는 투자 수단의 하나로 연금을 고려하는 부분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관심부족형' 가구와 '종합지향형' 가구, '여력부족형' 가구는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종합지향형' 가구나 '여력부족형' 가구의 경우 월 납입금과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연금 중도 환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림 II-11 | 연금 중도 환매 경험률 (단위:%)



주) 전체 n=3000, **연금 보유에 따른 5개 가구** 중 연금종합형 n=502, 절세지향형 n=554, 관심부족형 n=472, 종합지향형 n=365 , 여력부족형 n=856

그림 II-12 | 연금 중도 환매 이유 (단위:%)

• 연금 중도 환매 경험자 전체

	①	②	③
전체	생활비 필요(23.3)	목돈 필요(20.5)	낮은 수익률(19.5)

• 연금 보유에 따른 5개 가구 유형별

연금종합형	목돈 필요(21.4)	다른 상품(21.4)	생활비 필요(19.9)
절세지향형	낮은 수익률(27.1)	목돈 필요(20.6)	생활비 필요(16.5)
관심부족형	생활비 필요(24.2)	목돈 필요(19.3)	주택자금 마련(18.6)
종합지향형	생활비 필요(24.6)	목돈 필요(20.3)	월 납입 부담(16.1)
여력부족형	생활비 필요(30.2)	목돈 필요(21.4)	장기보유 부담(18.9)

주) 중도 환매 경험자 전체 n=872, **연금 보유에 따른 5개 가구** 중 연금종합형 n=206, 절세지향형 n=170, 관심부족형 n=161 , 종합지향형 n=118, 여력부족형 n=159

Ⅲ

[이슈1] 노후 거주지 선택 관련 니즈

01 | 노후 거주지 선택 요건

02 | 실버타운 거주 니즈

03 | Aging In Place 니즈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1년 501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8%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한 결과로 평가된다.

1장과 2장에서는 행복한 노후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력, 건강, 인간관계, 활동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준비 정도를 진단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지원하는 주택과 근린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 준비 정도와 함께 고령자 거주지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된 'Aging In Place(AIP)'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AIP'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혹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익숙한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개념으로, 한국인의 현실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3장에서는 노후 거주지를 선택하는 요건과 노인형 공동주택에 대한 인지도 및 거주 의향, 'Aging In Place'에 대한 니즈를 진단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거주지에 대한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금융 니즈를 발견하고자 한다.

New Findings

노후 거주지는 시설 인프라보다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 계속 거주 의향이 강했다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체 가구는 평균 9.1년, 은퇴후가구는 평균 13.1년을 거주

☞ 이는 거주 만족도로 연결되어 응답자 57.7%가 현재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시

☞ 은퇴후가구는 노후 거주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시설 인프라보다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42.6%) 의향을 중시하여 은퇴전가구(0.1%)가 예상하는 요건과 큰 차이를 보임

☞ 그 외 인프라로는 '의료시설'(30.3%), '쇼핑시설'(27.5%), '교통'(27.0%), '공원'(25.0%) 등의 순

내 집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안전한 주거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 응답자의 59.6%가 '노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여성'(62.1%)이 '남성'(57.7%)보다 이런 생각이 강함

☞ 내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요건은 '배우자·가족 등 간병'(32.5%) 지원과 '집안일'(22.7%), '자택 수리'(21.1%), '은행, 병원 등 근거리 외출'(20.0%)과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

☞ 노후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보수나 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응답자 71.3%가 동의

노인 공동 주거시설인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응답자 70%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남성(54.5%)보다 여성(68.9%)이 긍정적으로 생각

☞ 실버타운 의미도 '양로시설'(8.9%)이나 '간병시설'(4.4%)의 시설적 이미지를 꼽은 응답자는 적음

☞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에 살기 적당한 환경'(28.6%)과 '충분한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19.9%) 때문

01. 노후 거주지 선택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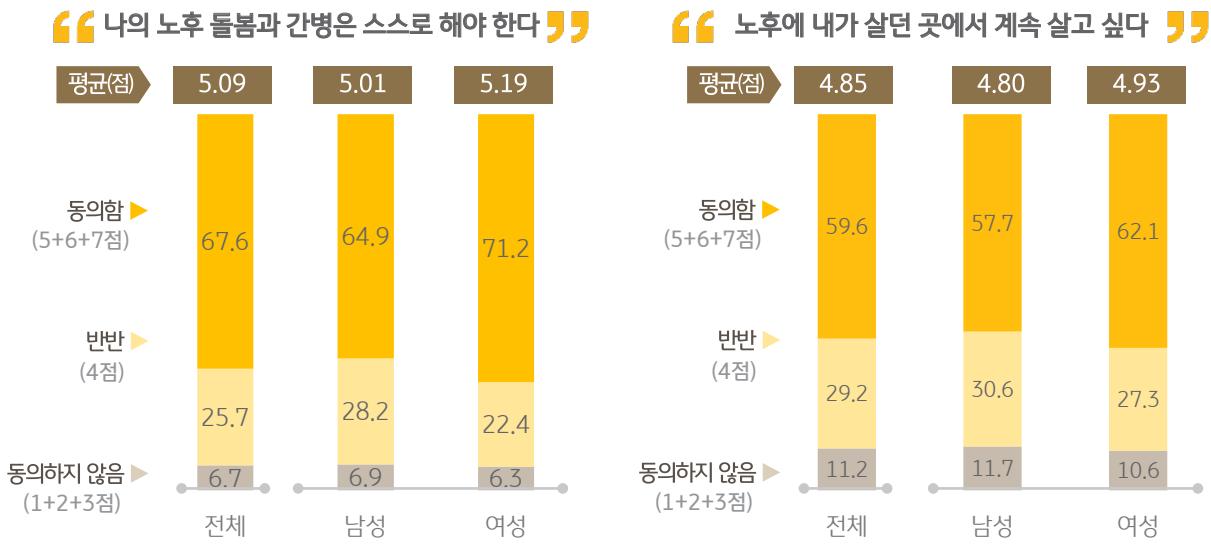
**노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생각이 강했다**

수명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인 부양 부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노후 계획과 노후 준비는 물론 노후 준비의 하나인 거주지 선택과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노인 부양 부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나의 노후 돌봄과 간병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응답자 3분의 2는 '동의한다'고 답변하여 자립 의지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여성(71.2%)이 남성(64.9%)에 비해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 집만 한 곳이 없다(There is no place like home)'는 영어 속담도 있듯이 인간은 집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보여 왔고, 생애 이론에서도 노년기로 갈수록 새로운 장소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애착 정도를 알아보고자 '노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응답자 59.6%가 이 의견에 동의했고, '여성'(62.1%)이 '남성'(57.7%)보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림III-1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주1) 전체 n=3000, 응답자 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점(매우 동의한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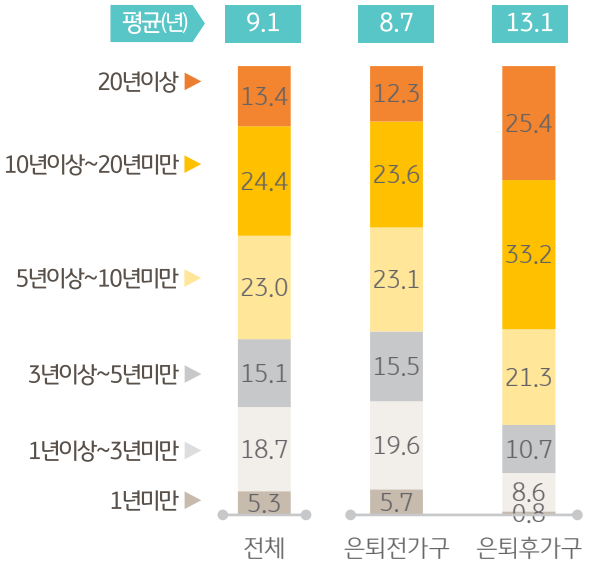
주1) 전체 n=3000, 응답자 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점(매우 동의한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9.1년, 은퇴후가구의 경우 평균 13.1년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가구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한 평균 기간은 9.1년이었다. 이는 은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전가구'는 평균 8.7년을, '은퇴후가구'는 평균 13.1년을 살았다. 특히 은퇴후가구는 한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비중이 58.6%로 높았다. 이는 연령대별 지속 거주 기간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44세 응답자의 경우 평균 5.4년, 45~54세는 8.3년, 55~64세는 평균 12.1년, 65~74세는 평균 13.5년, 75~79세는 평균 16.1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곳에서 오래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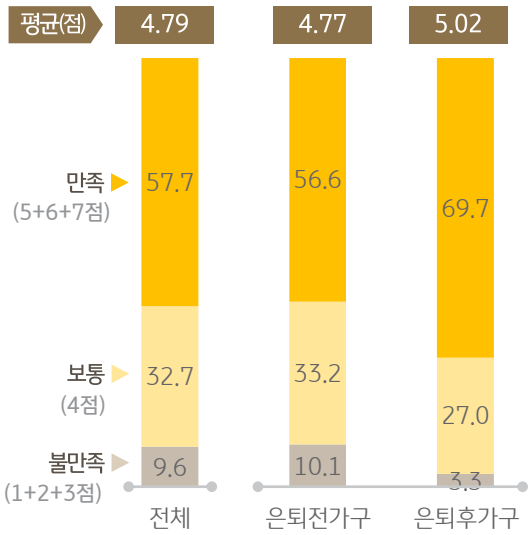
평균 거주 기간은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에도 반영되었다. 응답자의 57.7%는 현재 거주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은퇴전가구'(56.6%)에 비해 '은퇴후가구'(69.7%)가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거주지에 '불만족하다'는 응답률도 '은퇴후가구'의 경우 3.3%에 불과하며 '은퇴전가구'(1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앞서 은퇴후가구의 경우 노후에도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크고, 현재 거주지의 거주 기간이 길며 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하면 노후에 사는 지역을 크게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III-2 | 현재 거주지 거주 기간 (단위:%)



주) 전체 n=3000, 은퇴 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그림III-3 |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단위:점,%)



주1) 전체 n=3000, 은퇴 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244
주2) 1점(매우 부족하다)~7점(매우 충분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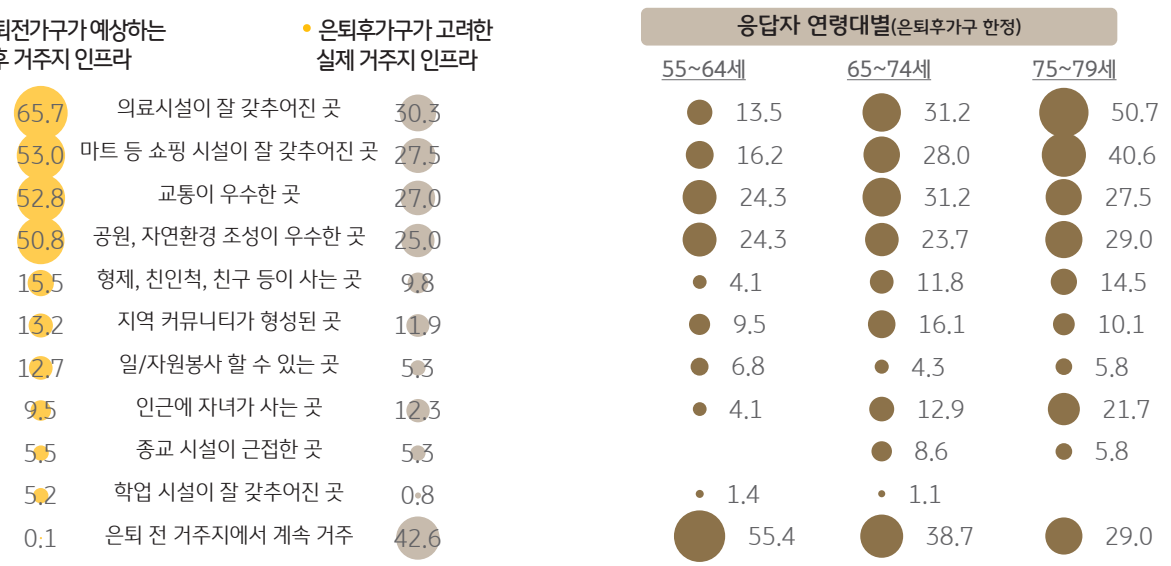
은퇴 전부터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니즈가 가장 컸으며, 은퇴후가구는 거주지 인프라로 병원이나 마트 등 근린시설을 중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들수록 병원이 가깝고 마트 등 근린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노후생활에 접어든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은퇴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거주지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를 물었다. 은퇴후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42.6%) 의향이 강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노후 거주지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는 병원이나 마트 등 근린시설보다 익숙한 환경을 중시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주지 인프라로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30.3%), '마트 등 쇼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27.5%), '교통이 우수한 곳'(27.0%), '공원·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25.0%) 등 주변 시설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인근에 자녀가 사는 곳'(12.3%),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11.9%), '형제·친인척·친구 등이 사는 곳'(9.8%) 등 가족·지인관계가 형성된 곳을 선택했다.

반면 은퇴전가구는 노후 거주지 인프라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65.7%)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했고, 뒤이어 '마트 등 쇼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53.0%), '교통이 우수한 곳'(52.8%), '공원·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50.8%)의 순으로 응답해 은퇴후가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거주지 인프라와 차이를 보였다.

은퇴후가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층일수록 병원이나 마트 등 주변 시설과 자녀가 주변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향이 증가했고, 은퇴 전 거주지를 선호하는 경향은 감소했다.

그림 III-4 | 노후 거주지의 주요 인프라 (1+2+3순위, 단위: %)



주)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 244

주1) 은퇴후가구 주 54세 이하는 소수 응답으로 제외
주2) 55~64세 n=74, 65~74세 n= 93, 75세~79세 n=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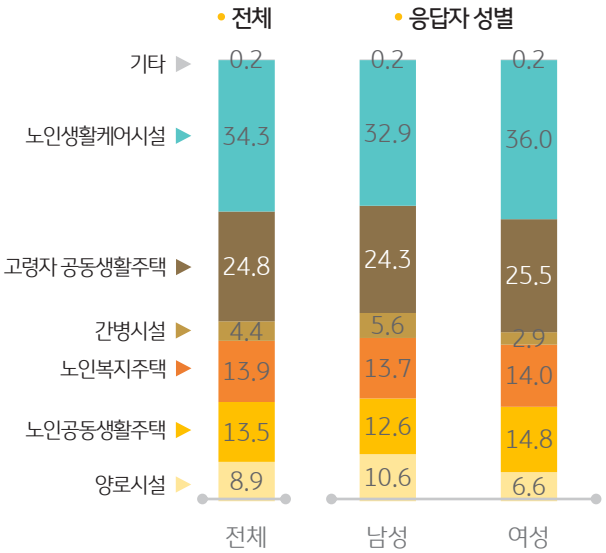
02. 실버타운 거주 니즈

스스로 활동이 가능한 고령자가 생활 지원을 받으며 사는 '실버타운'에 대해 5명 중 3명은 거주 의향이 있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길어진 노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내 집에서 사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후 거주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거론되고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버타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34.3%가 '노인 생활 케어시설'을 꼽았고, 다음으로 '고령자 공동생활 주택'(24.8%), '노인 복지 주택'(13.9%), '노인 공동생활 주택'(13.5%)의 순이었다. 반면 '양로시설'(8.9%)이나 '간병시설'(4.4%)과 같은 시설적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는 일부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0.2%)에는 비싸고 여유로운 노후 공간을 연상시키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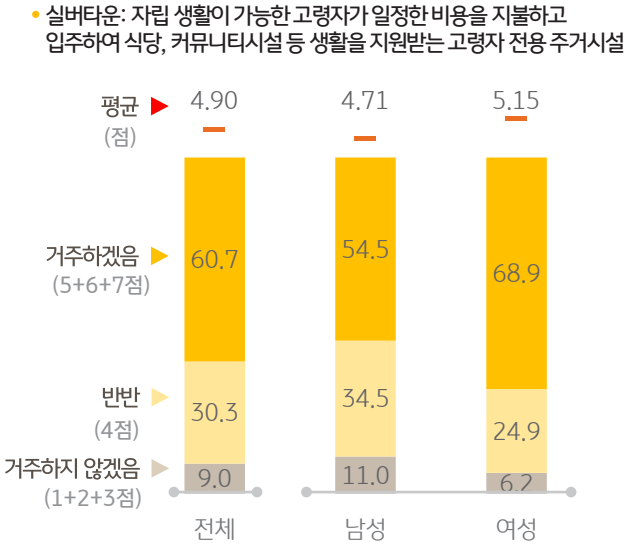
실버타운에 대해 '자립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주거비를 지불하고 입주하여 생활 지원을 받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거주 의향을 질문한 결과, '거주하겠다'는 응답자가 60.7%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54.5%)에 비해 여성(68.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III-5 | '실버타운' 용어에 대한 이미지 (단위:%)



주1) 전체 n=3000, 응답자 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실버타운' 용어가 주는 이미지 조사(용어 정의 미제시)

그림III-6 | 실버타운 거주 의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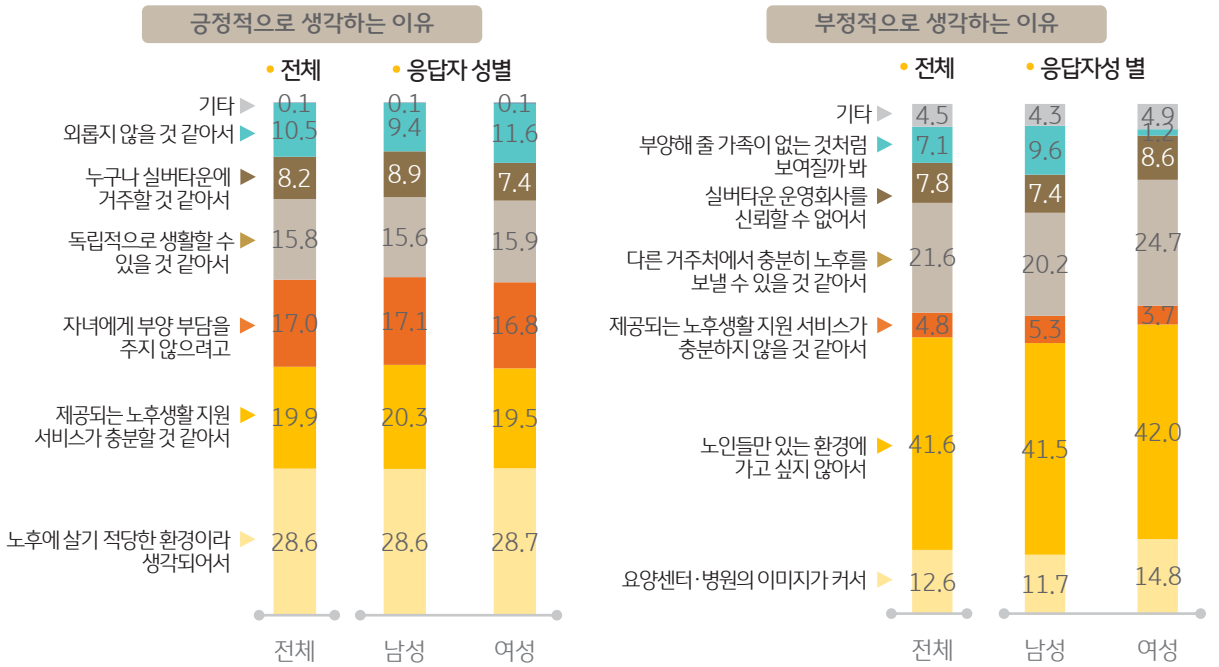
주1) 전체 n=3000, 응답자 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1점(절대 거주하지 않겠다)~7점(꼭 거주하겠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거주 환경과 생활 지원 서비스 때문이었다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노후에 살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되어서'(28.6%)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제공되는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할 것 같아서'(19.9%),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17.0%),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15.8%)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10.5%), '누구나 실버타운에 거주할 것 같아서'(8.2%) 등의 이유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11.6%)이 '남성'(9.4%)에 비해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실버타운 거주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9.0%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이들이 실버타운 거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만 있는 환경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41.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다른 거주처에서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21.6%), '요양센터나 병원의 이미지가 커서'(12.6%) 등의 이유가 있었으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실버타운 거주에 대한 부정적 이유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남성'(9.6%)은 '여성'(1.2%)에 비해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실버타운 거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III-7 | 실버타운 거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이유 (단위:%)



주1) '긍정적임'으로 응답한 경우
주2) 전체 n=1821, 응답자 성별 남성 n=928, 여성 n=893

주1) '부정적임'으로 응답한 경우
주2) 전체 n=269, 응답자 성별 남성 n=188, 여성 n=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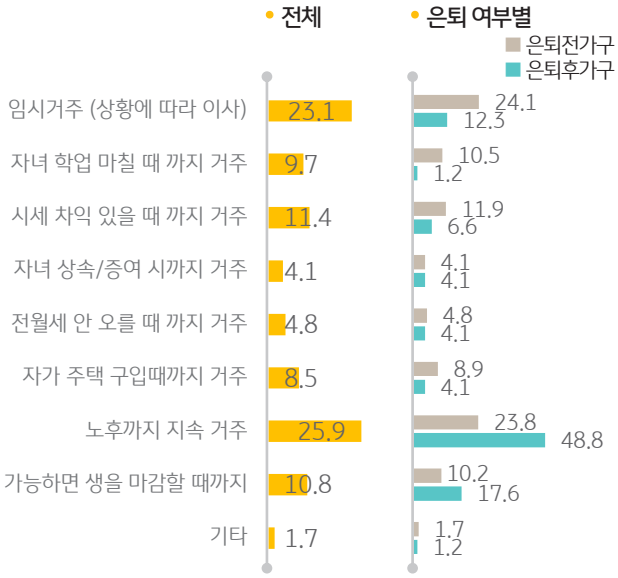
03. Aging In Place 니즈

살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Aging In Place'에 대해 한국 가구 3분의 2는 동의했다

앞서 현재 노후생활에 들어간 은퇴후가구를 통해 '은퇴 전부터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42.6%)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고령자가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Aging In Place(AIP)'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P'는 살던 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왔다. 'AIP'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현재 거주지에서 얼마나 더 거주하고자 하는지 질문한 결과, '노후까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상황에 따라 이사하겠다'는 응답자가 25.9%로 그 뒤를 이었다. '가능하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10.8%)를 선택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응답자가 33.9%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미 노후생활에 들어간 은퇴후가구의 경우 '노후 후반까지 계속 거주' 의향이 절반에 가까운 48.8%를 기록했고, '가능하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의향도 17.6%를 차지해 AIP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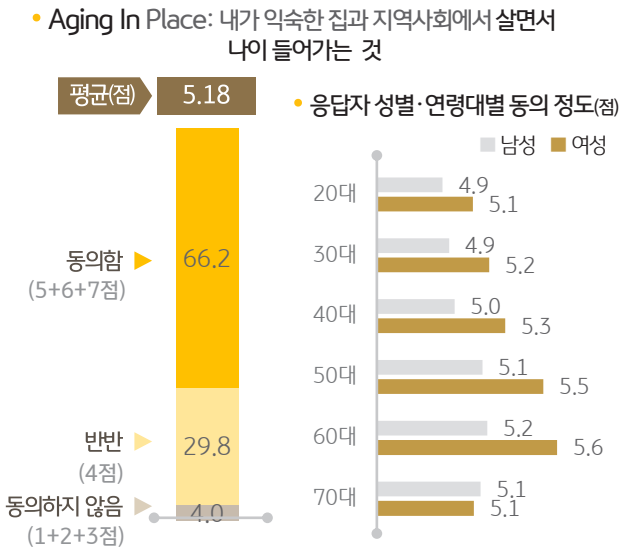
응답자에게 'Aging In Place'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의견을 질문한 결과 66.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동의율이 높았고, 특히 50대와 60대 여성이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그림III-8 | 현재 거주지 예상 거주 기간 (단위:%)



주) 전체 n=3000,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 244

그림III-9 | Aging In Place에 대한 인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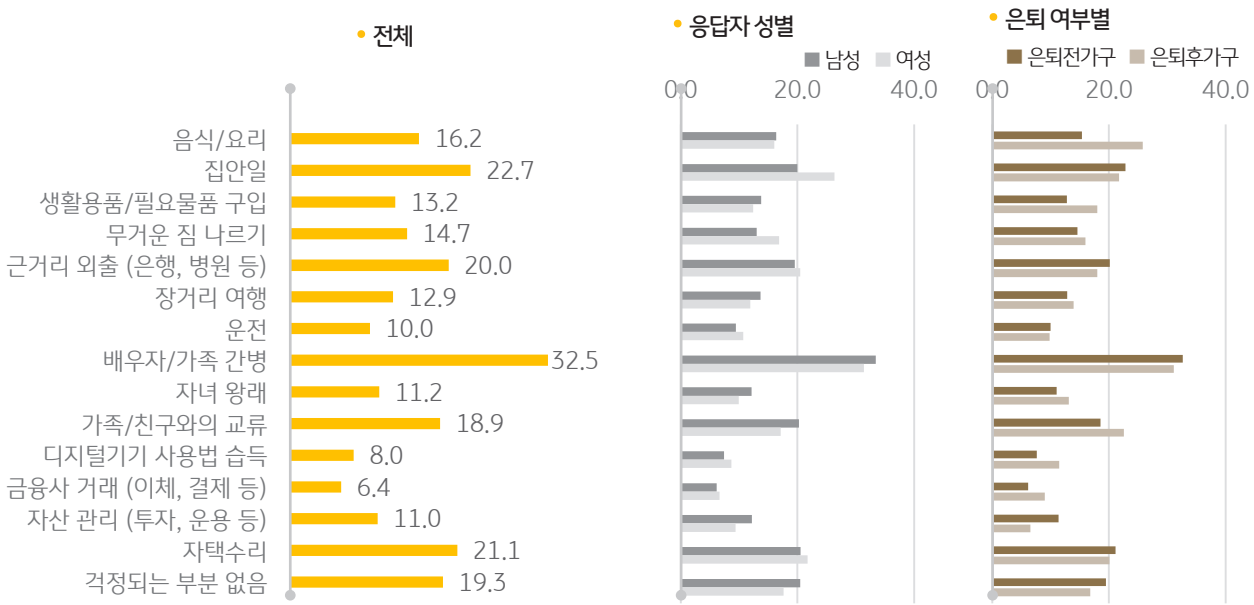
주1) 전체 n=3000, 성별 남성 n=1703, 여성 n= 1297
주2) 1점(매우 부족하다)~7점(매우 충분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배우자•가족 등 간병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내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경향인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내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걱정되는 부분 없음, 19.3%)으로 생각했으나, 80%에 가까운 응답자는 노후생활 걱정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배우자·가족 등 간병'(32.5%)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집안일'(22.7%), '자택 수리'(21.1%), '은행·병원 등 근거리 외출'(20.0%)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투자·운용 등 자산관리'(11.0%)나 '이체·결제 등 금융 거래'(6.4%) 등 금융 생활 측면의 걱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노후생활 걱정거리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가족·친구와의 교류'와 '투자 · 운용 등 자산관리'에 대한 우려가 컸고, 여성은 '집안일'이나 '무거운 짐 나르기'를 걱정했다. 은퇴 여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나 가족 등 간병'이나 '집안일', '자택 수리', '은행·병원 등 근거리 외출'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와 은퇴후가구 모두 큰 걱정거리로 생각했다. 반면 '음식·요리', '가족·친구와의 교류', '생활용품·필요물품 구입' 등은 은퇴전가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은퇴후가구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운용 등 자산관리' 역시 은퇴전가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은퇴후가구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컸다. 은퇴전가구는 노후생활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의 현실을 인지하여 대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그림III-10 | 노후생활 걱정거리 (1+2+3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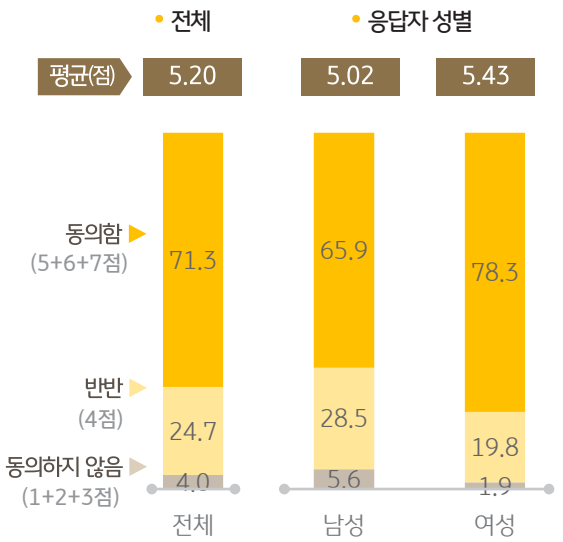
주) 전체 n=3000, 성별 남성 n=1703, 여성 n= 1297, 은퇴 여부별 은퇴전가구 n=2756, 은퇴후가구 n= 244

노후에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접수된 고령자 안전 사고는 '낙상 사고'(62.7%, 1만4778건), 사고 장소는 주택(74%, 1만1055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노후에 이전부터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주택 보수나 개조가 필요하다.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 보수나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71.3%가 '동의'를 표했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성'(65.9%)에 비해 '여성'(78.3%)이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 지속 거주'에 대한 니즈가 크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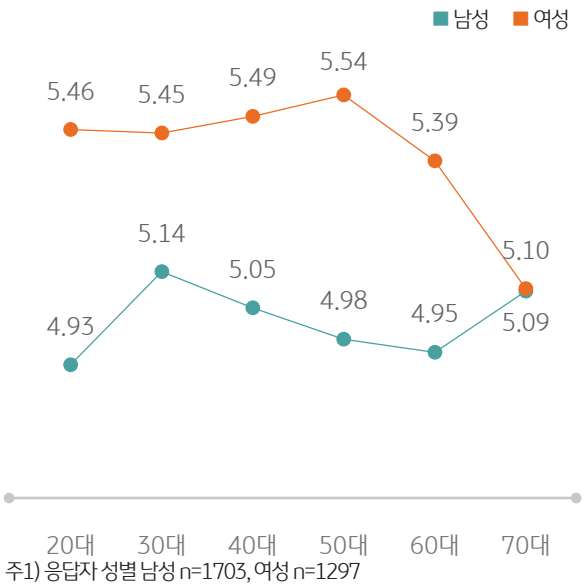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택 보수와 개조 필요성에 대해 '50대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20대와 30대, 40대 여성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60대와 70대 여성의 경우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주택 보수와 개조가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노후에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 안전한 집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림III-11 | 주택 보수와 개조 필요성 (단위:점, %)



주1) 전체 n=3000, 응답자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그림III-12 | 성별·연령별 주택 보수와 개조 필요성 (단위:점)



주1) 응답자 성별 남성 n=1703, 여성 n=1297
주2)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IV

[이슈2]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
- 자녀있는 부부가구 vs. 자녀없는 부부가구

01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02 | 부부가구의 노후 경제적 준비

03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및 금융 니즈

한국 사회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 증가에 주목할 때다. 1인가구는 2030년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가구가 '부부가구'다. 부부가구는 2020년 16.8%에서 2040년 22.2%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29.3%에서 19.7%로 감소하는 부모자녀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가구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부부가구는 부모자녀가구를 거쳐 부부가구로 환원된 후 다시 1인가구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부부가구의 유형은 현재 자녀가 있으나 부부만 사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자녀없는 부부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자녀없는 부부가구로 나누어 증가하는 부부가구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정도, 경제적 준비 상황, 생활상과 금융 니즈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자녀 유무에 따른 부부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려 한다.

New Findings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노후 롤모델을 찾기 어려웠다

☞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54.4%,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49.3%가 노후 모습에 대한 롤모델 보유

☞ 노후 롤모델 1순위는 자녀있는 부부가구(49.6%)와 자녀없는 부부가구(42.9%) 모두 '지인', 다음으로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부모'(19.9%),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배우자'(35.7%)를 선택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 노후생활에서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건강'(37.9%)과 '경제력'(28.1%),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경제력'(33.3%)과 '건강'(32.1%)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자녀있는 부부가구(3.89점)가 자녀없는 부부가구(3.48점)에 비해 잘 되어 있었으며, '경제력'에 대한 준비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두 가구 모두 가장 미흡한 부분

☞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된 시기에 대한 준비는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더 절실하고 다양한 준비 중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노후 경제적 준비 면에서 미흡했다

☞ 실제 은퇴 나이가 희망 은퇴 나이보다 자녀있는 부부가구 11년, 자녀없는 부부가구 14년 빠름

☞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는 자녀있는 부부가구 35.3%, 자녀없는 부부가구 63.4%

☞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생활비는 자녀있는 부부가구 358만 원, 자녀없는 부부가구 401만 원

☞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액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235만 원으로 65.5%,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218만 원으로 54.3% 수준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하려는 비중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60.7%인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6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주택연금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 비중이 높음

☞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18.5%에 그친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26.8%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실버타운 거주에 긍정적이었다

☞ 내 집 이외에 '실버타운'에 거주할 의향은 자녀없는 부부가구(5.07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4.82점)보다 높음

☞ '노후에 거동이 힘들게 되면 요양시설에 거주할 의향'에 대해 자녀없는 부부가구(4.94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4.73점)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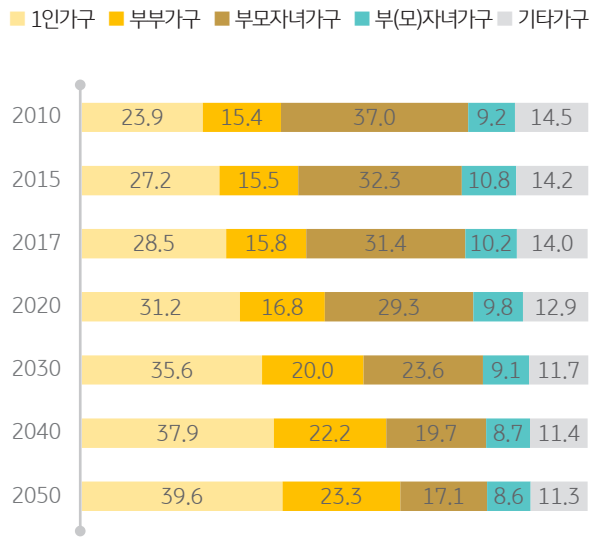
01.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2030년 한국 가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부부가구, 자녀는 있으나 현재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가 82.8%였다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고령화·저출산·비혼·만혼 추세에 따라 한국 사회는 가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30년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가구 유형이 될 '1인가구'와 함께 '부부가구'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구'는 2020년 16.8%에서 2030년 20.0%, 2040년 22.2%로 증가하며 2040년 이후 부모자녀가구보다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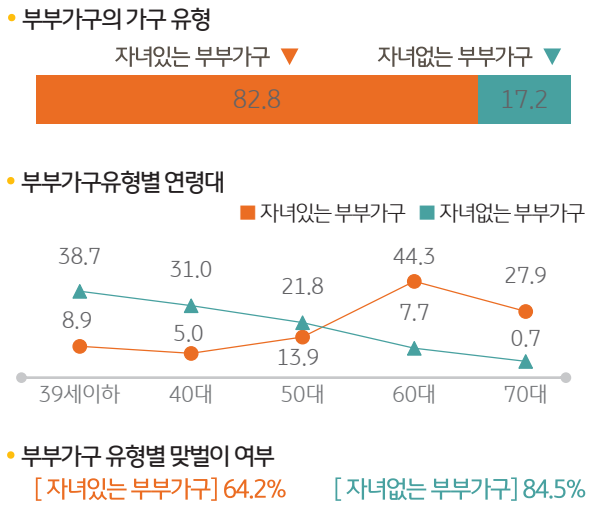
부부가구의 생활과 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유무일 것이다. 이에 자녀는 있으나 현재 부부만 함께 사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에도 자녀 계획이 없는 '자녀없는 부부가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부가구 중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82.8%,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60대와 70대가 72.2%로 고연령대가 대부분이었고,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40대와 50대가 52.8%로 저연령대가 주를 이루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 비중은 '자녀없는 부부가구'(84.5%)가 '자녀있는 부부가구'(64.2%)보다 높았다.

그림Ⅳ-1 | 한국 부부가구의 증가 추이 (단위:%)



주) KOSIS(장래가구추계 데이터)

그림Ⅳ-2 | 부부가구의 구성, 연령, 맞벌이 여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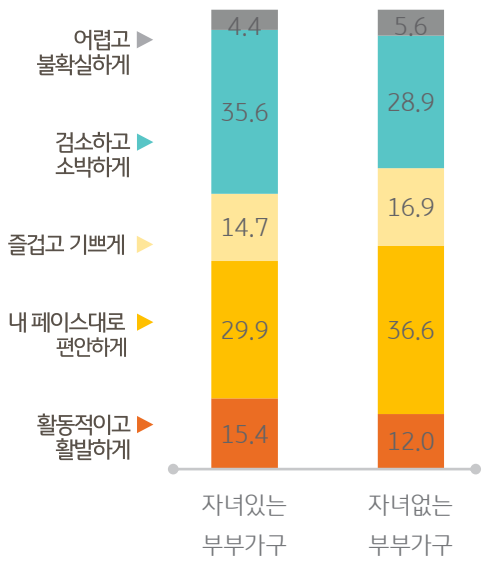
주1)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주2) 자녀있는 부부가구: 자녀가 있으나 현재 부부만 사는 가구
자녀없는 부부가구: 현재도 자녀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는 부부만 사는 가구

스스로 그리는 미래 노후 모습은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소박한 모습,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내 페이스대로 편안한 모습이었다

부부가구가 예상하는 자신의 노후 모습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자신은 노후에 '검소하고 소박하게'(35.6%)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29.9%)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그 순서가 바뀌어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36.6%), '검소하고 소박하게'(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즐겁고 기쁘게'(16.9%) 살 것이라는 응답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14.7%)보다 많았고,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어렵고 불확실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자녀없는 부부가구(5.6%)가 자녀있는 부부가구(4.4%)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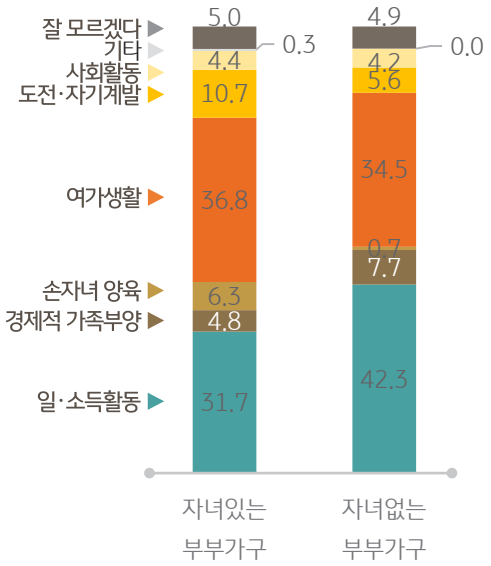
스스로 예상하는 노후생활 모습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계발'을 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많은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일이나 소득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유무에 따라 '일·소득활동'과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계발', '경제적 가족 부양'에서 응답률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계발'하는 모습을 그리는 응답자가 자녀 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많았고, '일·소득활동'과 '경제적 가족 부양'은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Ⅳ-3 | 부부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이미지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Ⅳ-4 | 부부가구가 예상하는 노후생활 모습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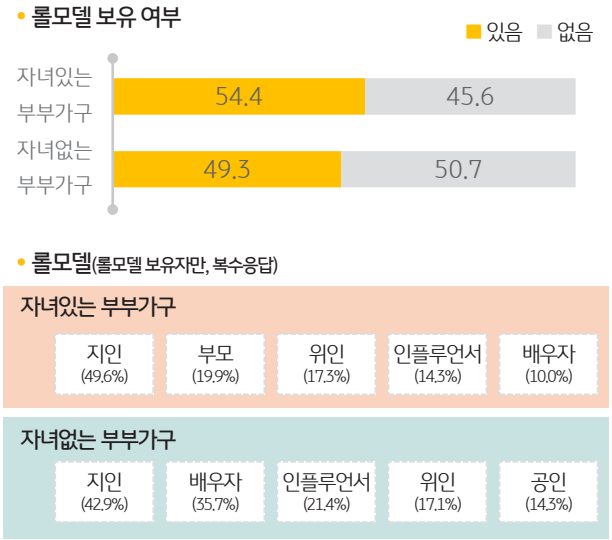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노후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구에게 노후 롤모델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있는 부부가구'(54.4%)가 '자녀없는 부부가구'(49.3%)보다 노후 모습에 대한 롤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롤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설문한 결과, 두 유형의 부부가구 모두 1순위로 '지인(자녀있는 부부가구의 49.6%,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42.9%)'을 지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2순위에서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부모'(19.9%)를,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배우자'(35.7%)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롤모델로 선택한 이유에서도 두 가구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먼저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자기관리 및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서'(38.3%)거나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모습이어서'(30.2%) 선택했다.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보내서'(41.4%),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모습이어서'(34.3%)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가장 많이 선택했던 '자기관리 및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서'(30.0%)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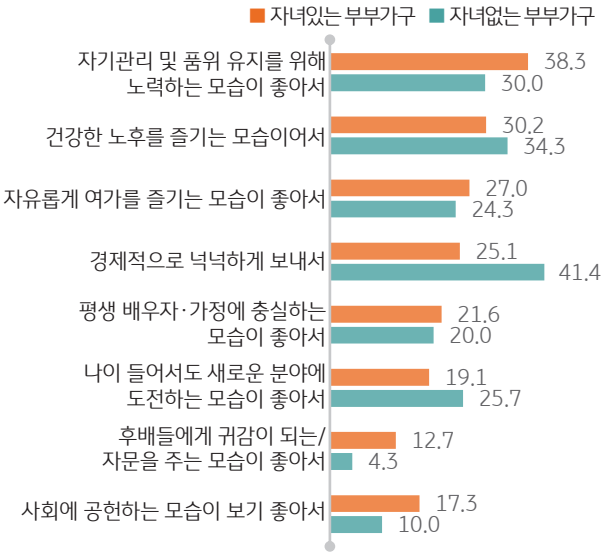
한편 앞서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자신의 노후생활 모습을 '일이나 소득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불안감이 롤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Ⅳ-5 | 부부가구의 노후 롤모델 (단위:%)



주1)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주2) 롤모델 보유자 한정, 자녀있는 부부가구 n=371, 자녀없는 부부가구 n=70

그림Ⅳ-6 | 부부가구의 롤모델 선택 이유 (1+2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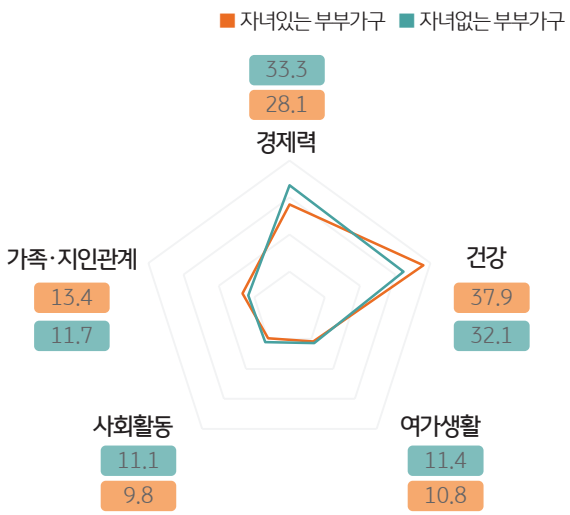
주1) 노후 롤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한정
주2) 자녀있는 부부가구 n=371, 자녀없는 부부가구 n=70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부부가구가 노후생활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건강'(37.9%)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경제력'(28.1%)이었다. 그 외 '가족·지인관계'(13.4%), '여가생활'(10.8%), '사회활동'(9.8%)의 순이었다.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경제력'(33.3%)과 '건강'(32.1%)이 30%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그 외 '가족·지인관계'(11.7%), '여가생활'(11.4%), '사회활동'(11.1%)에 대해서는 10% 초반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건강'이나 '가족·지인관계' 부문을,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경제력'과 '사회활동' 부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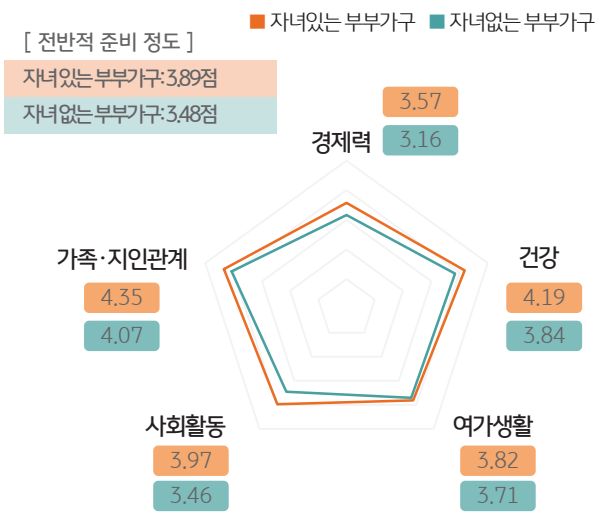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보면, '자녀있는 부부가구'(3.89점)가 '자녀없는 부부가구'(3.48점)에 비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부문별로 보면,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자녀없는 부부가구 모두 '가족·지인관계'(각각 4.35점 4.07점), '건강', '여가생활'의 순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두 번째로,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경제력'에 대한 준비 정도는 여타 요인과 비교하여 가장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노후생활 부문별 준비 정도를 비교해보면,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건강'을 포함하여 '경제력', '가족·지인관계', '여가생활', '사회활동'의 다섯 가지 부문 모두에서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림IV-7 | 자녀 유무별 노후생활 부문 중요도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IV-8 | 자녀 유무별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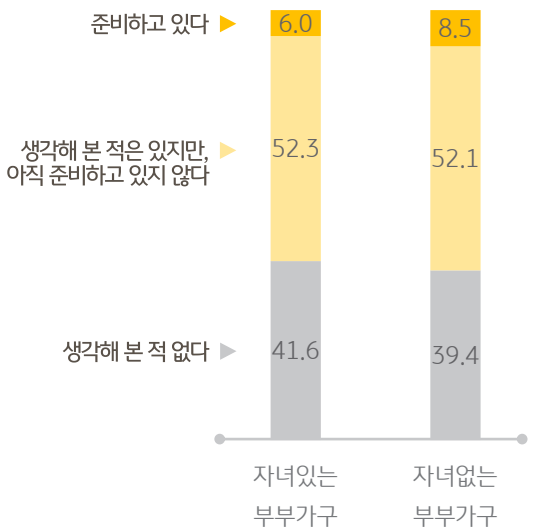
주1) 현역·반퇴가구만, 자녀있는 부부가구 n=559, 자녀없는 부부가구 n=138
주2) 준비정도는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7점(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된 노후 시기에 대한 준비는 부부가구 절반 정도가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가족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부부가구의 다음 단계는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여 혼자 남는 1인가구의 시기다. 부부가구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같은 시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홀로 된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4명 정도에 해당했다. 반면 이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6.0%,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8.5%를 차지해 이 시기에 대한 준비가 두 가구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이 적기는 했지만 홀로 된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는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홀로 된 노후 시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질병에 대한 보장·준비'(58.3%)와 '배우자 사후 대비 경제적 준비'(58.3%)를 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뒤이어 '거주 주택의 유지·보수'(41.7%), '디지털·전자기기 사용법 습득'(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질병에 대한 보장 준비'(53.7%)가 5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외 '여가·취미활동 마련'이나 '여생을 대비한 자산 형성', '금융회사 거래 유지' 등은 5명 중 1명 정도만 실행하고 있었다.

그림IV-9 | 홀로 된 노후 시기에 대한 준비 여부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IV-10 | 홀로 된 노후 시기의 준비 행동 (복수응답, 단위:%)

주1) 준비하는 경우만, 자녀있는 부부가구 n=41, 자녀없는 부부가구 n=12
주2) 모두 선택형 질문, 응답 유의성을 고려하여 응답률 20%이상만 서술

02. 부부가구의 노후 경제적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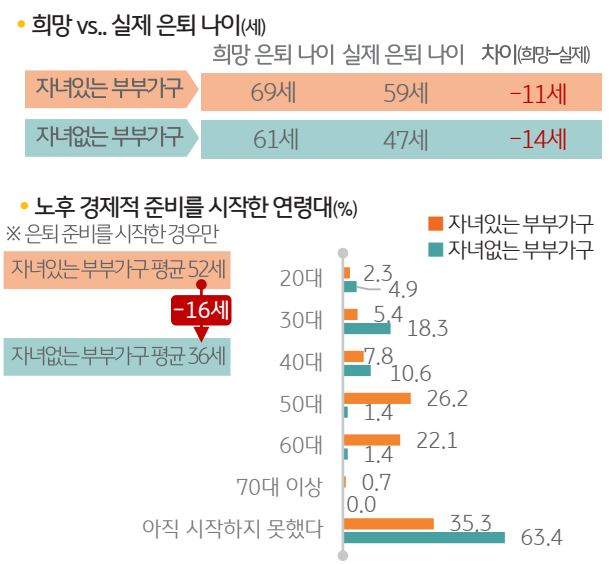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가 미흡했다

앞서 가장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던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퇴 나이의 경우 현재 은퇴 전인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69세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은퇴한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실제 은퇴한 나이는 59세로 11년 은퇴가 빨랐다.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 14년 은퇴가 빨랐다. 이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짧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연령대 보면,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35.3%,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63.4%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준비를 시작한 평균 나이가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52세,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36세로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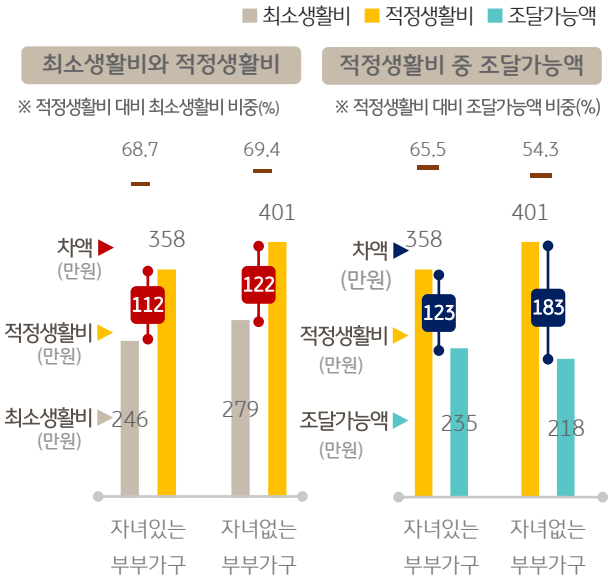
노후생활비 규모는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적정생활비로 358만 원을,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401만 원을 생각하여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더 큰 금액을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 금액은 크나 현재 조달 가능한 액수는 작았는데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조달가능액은 235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65.5%이고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조달가능액이 218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54.3%에 그쳤다.

그림Ⅳ-11 | 희망 은퇴 나이와 노후 경제적 준비 (단위: 세, %)



주) 희망 은퇴 나이 응답자, 자녀있는 부부가구 n=447, 자녀없는 부부가구 n=118
실제 은퇴 나이 응답자, 자녀있는 부부가구 n=188, 자녀없는 부부가구 n=20

그림Ⅳ-12 | 부부가구의 노후생활비 준비 (단위: 만원)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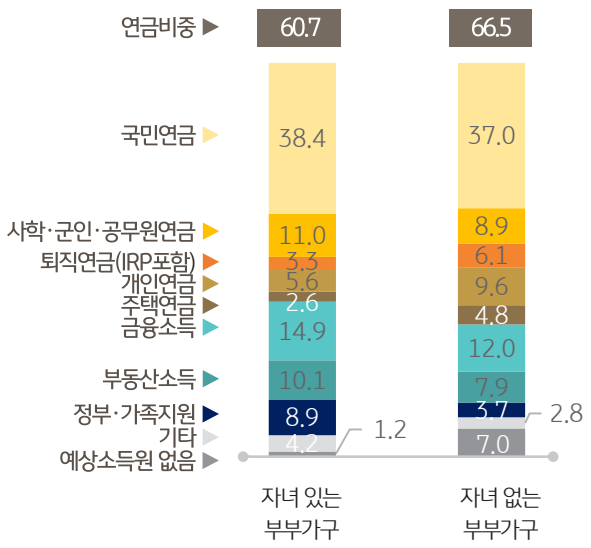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연금 의존도도, 주택연금 활용 의지도 높았다

앞서 노후생활비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규모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235만 원,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183만 원이었다. 이들 부부가구는 노후생활비 조달을 위한 예상 소득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연금과 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자와 금융상품원금 등 '금융소득', 임대료 등 '부동산소득',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소득이 거론되었다.

먼저 '공적연금'(48.8%)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충당하려는 비중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60.7%인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6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경우 공적연금보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노후에 예상되는 소득원이 없다는 응답률은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1.2%에 그친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7.0%로 높게 나타나 우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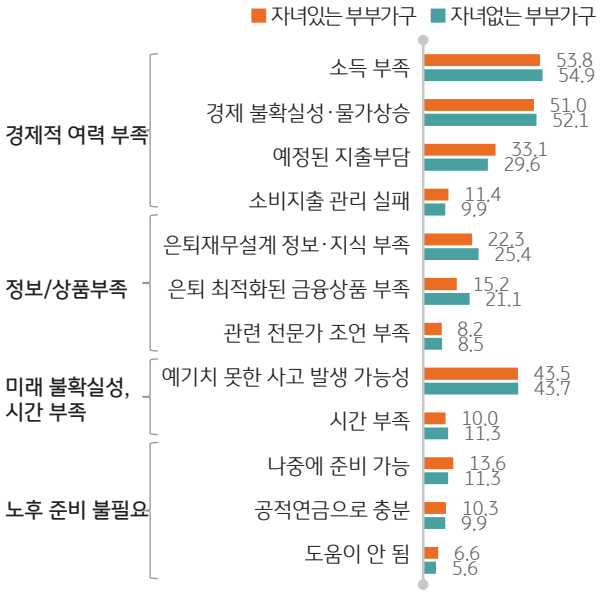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어려웠던 주요 이유로는 '소득 부족'과 '경제 불확실성·물가상승',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두 가구 모두에게서 지적되었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본인 결혼 등 '예정된 지출 부담'(33.1%)을 특히 우려하고 있었으며, '자녀없는 부부가구(21.1%)는 은퇴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그림Ⅳ-13 | 향후 노후생활비 조달 방법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Ⅳ-14 | 노후 경제적 준비 애로사항 (1+2+3순위,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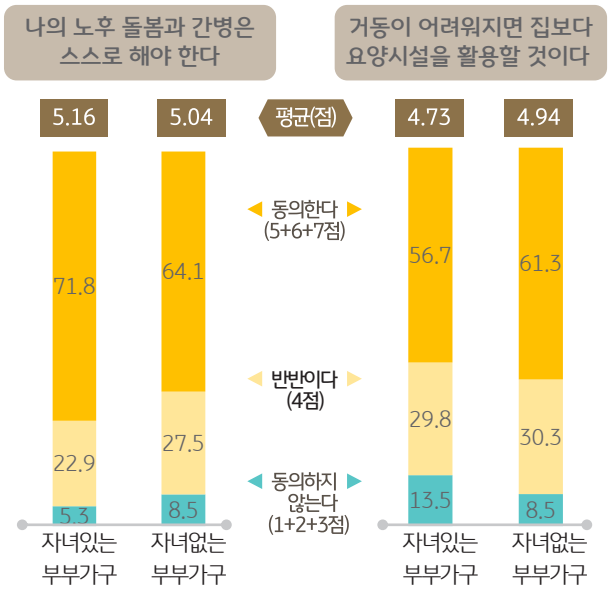
03.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및 금융 니즈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자녀없는 부부가구보다 노후 돌봄과 간병에 대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노후생활의 자립 정도에 대해 '자녀있는 부부가구'(5.16점)가 '자녀없는 부부가구'(5.04점)보다 노후 돌봄과 간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는 자녀가 있으나 노후 돌봄과 간병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배우자나 기타 주변 시설에 대한 의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노후에 거동이 어려워지면 집보다 요양시설에서 거주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추측할 수 있었는데, '자녀없는 부부가구'(4.94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4.73점)에 비해 요양시설 활용 의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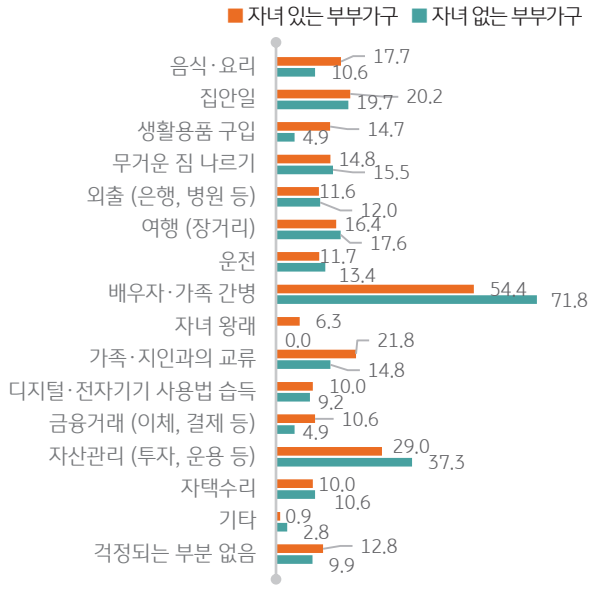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사항은 '배우자·가족 간병'으로 나타났다. '자녀있는 부부가구'(54.4%)보다 '자녀없는 부부가구'(71.8%)의 우려가 컸는데, 자녀에게 돌봄을 의탁 가능한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생활용품 구입'(9.8%p), '가족·지인과의 교류'(7.6%p), '음식·요리'(7.1%p), '자녀 왕래'(6.3%), '이체·결제 등 금융 거래'(5.9%) 등에서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우려했다.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투자나 운용 등 자산관리'(8.3%p)를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큰 걱정거리로 생각했다.

그림Ⅴ-15 | 노후생활 자립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Ⅴ-16 | 노후생활 걱정거리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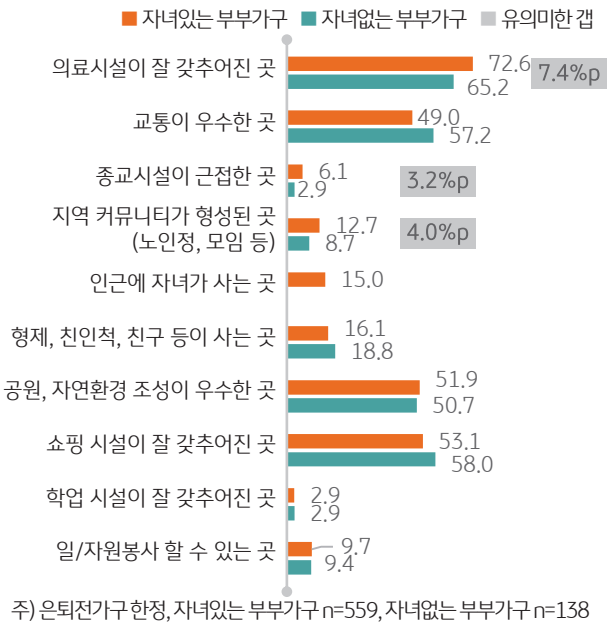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부부가구는 노후 거주지의 시설 인프라로 '의료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부가구는 전반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거주지 인프라로 의료시설과 쇼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나 공원이나 자연환경이 조성된 곳, 교통이 우수한 곳 등을 꼽았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인근에 자녀가 사는 곳'(15.0%)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7.4%p)이나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4.0%p), '종교시설이 근접한 곳'(3.2%p)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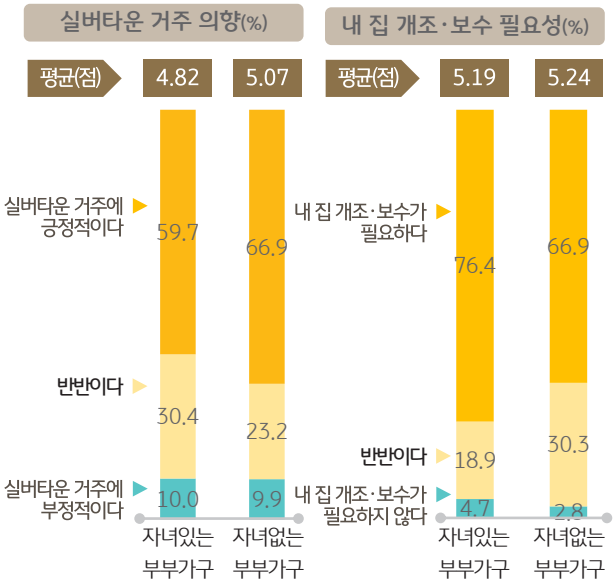
노후 거주지로서 '내 집에서 노후에도 계속 살기 위해 주택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려는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았다. 내 집 개조·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없는 부부가구'(5.24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5.19점)에 비해 더 절실하게 여겼다. 비슷한 시기에 내 집 이외에 '실버타운'(자립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입주하여 식당,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을 지원받는 시니어 전용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경우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앞서 노후 돌봄과 간병에 대한 자립을 위해 배우자나 주변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응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그림Ⅳ-17 | 희망하는 노후 거주지의 인프라 (단위:%, %p)



주) 은퇴전가구 한정, 자녀있는 부부가구 n=559, 자녀없는 부부가구 n=138

그림Ⅳ-18 | 노후 거주지에 대한 이용 의향 (단위: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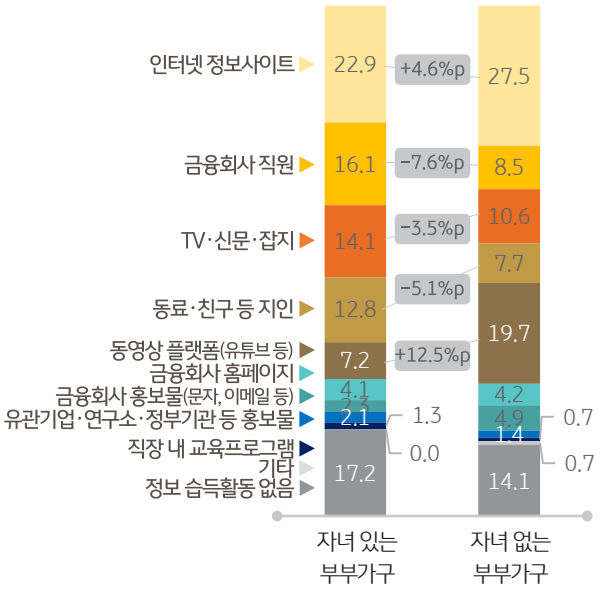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선호하는 노후자금 정보 채널은 '인터넷 정보사이트', 가장 많이 한 활동은 '금융상품 가입'이었다

노후자금 관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채널과 관련해서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생각 차이가 컸다. 자녀있는 부부가구와 자녀없는 부부가구 모두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자녀없는 부부가구'(27.5%)가 '자녀있는 부부가구'(22.9%)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16.1%)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응답자가 많았고, 'TV·신문·잡지'(14.1%), '동료·친구 등 지인'(12.8%),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7.2%)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있었다.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동영상 플랫폼'(19.7%)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응답자가 많았고,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높은 이용률(+12.5%p)을 나타냈다. 반면 '금융회사 직원'(-7.6%p)이나 '동료·친구 등 지인'(-5.1%p), 'TV·신문·잡지'(-3.5%p)를 정보 습득 채널로 이용하는 응답자는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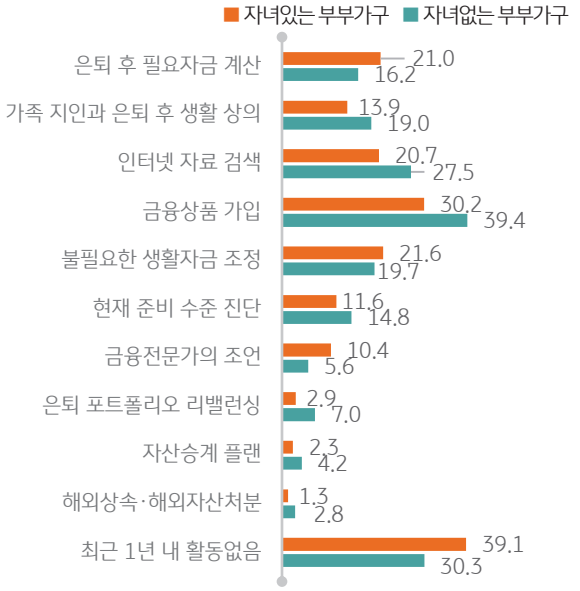
응답자의 3분의 1은 최근 1년 이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응답자는 자녀있는 부부가구(39.1%)가 자녀없는 부부가구(30.3%)에 비해 많았다.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실행 노력으로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금융전문가의 조언'(4.8%p)을 얻거나 '은퇴 후 생활자금을 계산'(4.8%p)한 응답자가 많았고,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금융상품 가입'(+9.2%p)이나 '인터넷 자료 검색'(+6.8%p), '가족·지인과 은퇴 후 생활 상의'(+5.1%p), '은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4.1%p), '현재 준비 수준 진단'(+3.2%p) 등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다양한 노후자금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림IV-19 | 노후자금 관련 정보 습득 채널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IV-20 | 1년 내 노후자금 준비 활동 (복수응답,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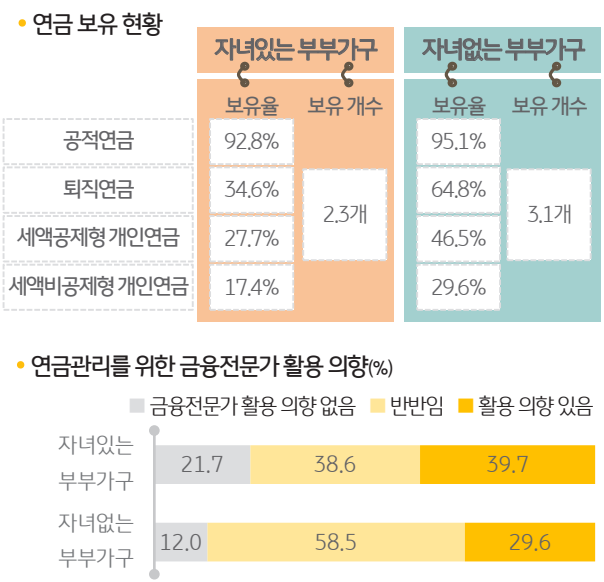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연금'을 활용한 노후 경제적 준비에 적극적이고, 향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경제적 준비 의향도 컸다

연금 보유 현황에서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연금 보유율과 보유 개수가 적었다.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평균 3.1개,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평균 2.3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율도 모든 연금 부문에서 자녀있는 부부가구보다 높았다.

한편 '연금관리를 위한 금융전문가 활용 의향'에 있어서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39.7%가 금융전문가 활용 의향을 나타낸 반면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9.6%만 연금관리를 위해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겠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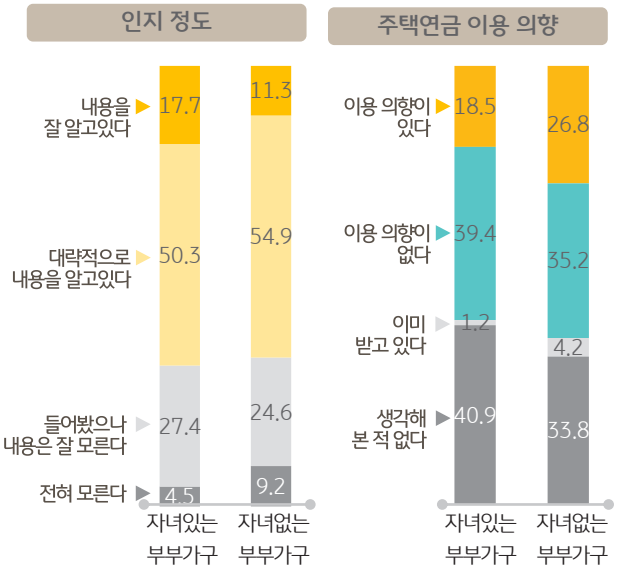
향후 자산 유동화 차원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용 의향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자녀없는 부부가구에 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향후 주택연금 이용 의향은 자녀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자녀있는 부부가구는 18.5%에 그친 데 비해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26.8%로 8.3%p 높았다.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자녀있는 부부가구(40.5%)가 자녀없는 부부가구(33.8%)에 비해 많았다.

그림IV-21 | 연금 보유 현황 및 연금관리 대행 니즈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그림IV-22 | 주택연금 활용 의향 (단위:%)



주) 자녀있는 부부가구 n=682, 자녀없는 부부가구 n=142

[참고]

01 | 용어 정의

02 | 연구 방법

참고1 : 용어 정의

- 가구유형 분류

1인가구	현재 1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부부가구	현재 부부로 구성된 가구(같이 살고 있는 2인 가구)
부모자녀가구	현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부가구의 유형 분류

자녀 있는 부부가구	자녀가 있으나 현재 부부만 사는 가구
자녀 없는 부부가구	현재도 자녀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는 부부만 사는 가구

- 가구 근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유형(Ⅰ)

현역가구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가 근로활동 상태인 가구
반퇴가구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가 반퇴 시기에 있는 가구(현직가구 제외)
은퇴가구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가 모두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

- 근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근로유형 분류(Ⅱ)

은퇴전가구	현역가구와 반퇴가구의 합
은퇴후가구	은퇴가구

- 연금상품 구분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 IRP 포함
개인연금	세액공제형·세액비공제형 보험, 펀드, 신탁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월급으로 받는 연금

- 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개인연금상품 구분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 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연금 예) 연금 외 저축성보험, 일반 펀드, 일반신탁, 주택연금

- 연금 보유에 따른 5개 가구

연금종합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 세액공제형 또는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을 보유한 3층 구조 연금 보유 가구(절세지향형 제외)
절세지향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가구
관심부족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보유 가구
종합지향형	공적연금 + (세액공제형 또는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여력부족형	공적연금만 보유

참고2 : 연구 방법

• 20~64세: 온라인 조사/ 65~79세: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 병행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79세 남녀 • 가구 내 금융 의사 결정자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와 대면조사 병행
조사 기간	• 2023년 1월 3일 ~ 1월 27일 (25일)
표본추출 방법	• 지역X연령의 유의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표본 구성	• 총 3,000명 –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샘플링 3000명 – 지역: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세종시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세종	울산	계
20대	102	81	18	24	16	13	21	5	280
30대	147	185	38	38	27	19	28	14	496
40대	158	254	54	54	41	28	34	20	643
50대	175	268	61	66	51	30	35	25	711
60대	152	197	48	67	43	22	28	20	577
60~64세	86	119	29	37	25	13	16	12	337
65~69세	66	78	19	30	18	9	12	8	240
70대	85	92	22	38	23	12	13	8	293
계	819	1,077	241	287	201	124	159	92	3,000

•응답자 성별: 지역별 남:여 = 6:4~5:5 (소프트 쿼터)

※ 모집단: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 성별과 연령, 세대별 구성 가구(일반 가구)-시군구

발 행 인 양종희

편 집 인 한동환

발 행 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 구 자 부장 황원경(wk.hwang@kbfg.com), 연구원 강윤정(rkang@kbfg.com)

시장조사 ㈜컨슈머인사이트

발 행 일 2023년 11월 26일

인 쇄 신우씨앤피